2026년 가을호 vol.184

이화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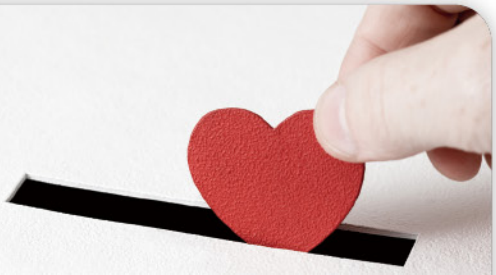
2026 총동창회 대바자회/2026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외증조할머니부터 증손녀까지 4대 이화 가족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제인 오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7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7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6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9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6년 기준 만 60세 미만(1990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2026년 가을호 vol.184

이화 동창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아령당 정문의 가을(2022)

1986년에 봉헌된 아령당은 한옥 기와 단층 건물로, 가정대(현 생활환경대) 동창들의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령당의 명칭은, 신라 박혁거세의 부인 '알영' 왕비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활환경대 학생들의 가사실습장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생활환경대의 세미나 공간이자 총장 초청 오찬 등 교내 주요 행사에 활용되며 캠퍼스의 역사적 분위기를 보여 주는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화 캠퍼스맵 참조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
최정은(커미부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발행 2026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6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03 **2026 총동창회 대바자회**
좋은 물건 한가득, 사람과 웃음도 한가득 왁자지껄 북적북적, 이화에 장이 섰다

13 **제1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열두 해째 이화동산에 번진 웃음, '친구와 함께'로 완성한 가을 하루

19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제인 오 동창

24 **우리는 이화가족 / 외증조할머니부터 증손녀까지 4대 이화가족**
86년의 시간을 이어온 이화, 그곳에 가면 엄마가 있다

28 **총동창회 소식**
대바자회 진행 상황 보고와 총동창회에서 새로 제작한 기념품 홍보

30 **선교지에서 온 편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소서

32 **모교 소식**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기관유치형' 선정 외

37 **대학(원) 소식** 조형예술대학 외

40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48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57 **동창 근황** 한진수 동창 외

70 **동창이 펴낸 새 책** 『부서진 세월의 흔적』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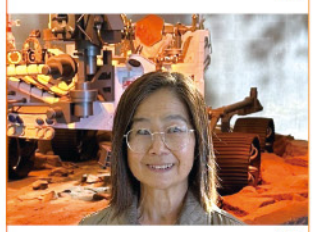


03





13



19



24



29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14)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140세 된 '이화'를 즐거워하시는 당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화 동창과 더불어 여상히 기도의 줄 붙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화'를 향하여 간구하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심으로 칭찬해 주시고
당신의 기운에 의지하여 '이화'를 향하여 한마음으로 손 모으도록
친히 붙드시고 돌이켜 세우심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때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편향되고 탐욕스러운 사유의 영역들은 당신의 입의 검으로 제하시고
오직 당신의 뜻 좇아 아뢰는 지경의 높이와 넓이를 나날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 곁에 머묾이 참 복인 것을 '이화'로 하여금 거듭 알게 하셔서
헛된 곳 바라보지 않고 허탄한 뜻 품지 않으며 허망한 꿈 꾸지 않게 하심으로
140년 전 '이화'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싸매시고 인도하신 당신의 품에 안기어
전후좌우 분별함으로 당신의 걸음에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당신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당신이 멀어지거나 낯설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셔서
머뭇거림 없이 당신 안에 거하는 무릎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이화'의 입술 열어 오직 당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찰나마다 '이화'를 채우시고 용납하고 포용하셨던 당신과의 만남들을 되뇌면서
행여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그 속은 밀랍 같이 녹고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으며
혀는 입천장에 붙어 죽음의 진토(시편 22:14-15)'에 있는 듯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당신께서 '이화'를 여전히 두르고 계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입혀 주시는 내면의 깊은 평안과 평화의 옷을 든든히 여미면서
'이화'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 눈 밝히시는 당신만을 바라고
'이화'의 삶을 통해 오직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화'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좋은 물건 한가득, 사람과 웃음도 한가득 왁자지껄 북적북적, 이화에 장이 섰다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2026 대바자회가 2026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화여대 생활환경관 및 학생문화관 주변 광장에서 열렸다. 1966년 첫 개최 이래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총동창회 대바자회는 판매 수익금으로 총동창회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동창들이 만나 정겨운 장터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져 왔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정 곳곳은 대바자회를 찾은 동창과 재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초가을의 상쾌한 바람 사이로 한풀 꺾인 늦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쾌청한 날씨 속에, 부스마다 판매 물품이 모습을 드러내고 반가운 인사와 웃음소리가 오가면서 교정은 어느새 활기찬 장터로 변해 갔다.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이 "맑고 상쾌한 가을 날씨 속에 많은 동창들과 뜻깊은 행사를 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대바자회의 시작을 알린 데 이어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오늘의 바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과 나눔이 서로에게 회복과 힘이 되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한다"라는 감사기도로 행사를 축복했다.

이날 대바자회에는 김은미(사회 81)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이경숙(영문 70)·김영주(유교 71)·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 고문과 이향숙(수학 86) 모교 총장, 최윤정(영문 95) 대외협력처장이 찾아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진, 이올연합회, 각 과와 대학(원) 동창, 재학생, 교직원이 동참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대바자회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동창들의 활기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총동창회에서는 QR코드와 지도를 제작해 동창들이 원하는 부스를 찾기 쉽게 했고, 앰뷸런스를 준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으며, 각 부스마다 '대바자회 키트'를 준비해 나누어 주었다

총동창회가 준비한 특별한 대바자회, 이화 140주년 굿즈부터 세심한 운영까지

총동창회는 이화 14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기념품과 기존 인기 상품을 함께 준비했다. 다리아송(송지혜, 섬예 09) 일러스트 파우치를 비롯해 이화 졸업가운을 입은 곰돌이 캐릭터 키링과 배지(Badge) 등 새로운 상품이 눈길을 끌었으며, '스테디셀러'인 저염 백명란과 장우산 등 꾸준히 사랑받아 온 상품들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동창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바자회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더했다. 먼저 대바자회 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마련해 학과와 단체별 판매 물품과 부스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스 안내 맵을 제공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QR코드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난해보다 휴식 공간과 그늘막 부스도 넉넉하게 마련해 동창들이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교정을 거닐며 가을 나들이의 여유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도 세심하게 이뤄졌다. 총동창회에서는 텀블러, 선캡, 부채, 생수, 대형 쓰레기봉투, 장바구니 등 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이화 장바구니에 담은 '대바자회 키트'를 각 부스에 전달해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앰뷸런스를 배치해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이화 140주년, 대바자회에서 만나는 특별한 이화 굿즈

올해 대바자회에서는 이화 140주년을 맞아 제작한 특별한 상품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화의 상징과 역사를 담은 굿즈부터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까지, 이화를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동창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식미술과에서는 이필(E:FEEL) 패션디자인연구소에서 제작한 창립 140주년 특별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화의 상징인 배꽃을 모티프로 한 스카프와 손수건, 가먼트백 등에 이화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냈다.

이수매니지먼트(이화학당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이화상점'에서는 이화 140주년 한정판 이화 야구점퍼, 배꽃과 본관 전경을 담은 토트백과 이화 손수건, 배꽃 합죽선 부채 등을 선보였다.

이화 140주년을 맞은 올해는 특히 모교 관련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된 게 특징. 총동창회에서는 새로 제작한 이화 관련 상품을 선보였고, 이화학당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수매니지먼트에서는 이화의 배꽃 문양을 담은 선물용 과자 세트를 준비해 완판시켰다. 장식미술과는 이필(E:FEEL) 패션디자인연구소에서 제작한 이화 140주년 특별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화의 상징인 배꽃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다양한 스카프와 가먼트백의 반응이 좋았다







장터 나들이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일. 동창이 직접 만든 떡볶이, 샌드위치, 핫도그, 소떡소떡, 호두파이 등과 아귀포, 젤라또 등 먹거리들은 좋은 재료 선별, 정성스러운 손길, 당일 땡볕 아래 불판에서의 씨름을 마다않은 노고의 결실이었다



특히 이화의 배꽃 문양을 담은 선물용 과자 세트가 눈길을 끌었는데, 과자와 함께 이화 야구점퍼를 입은 앙증맞은 곰돌이 인형을 한 세트로 구성해 보는 재미를 더했으며, 고급스럽고 정갈한 보자기 포장으로 추석을 앞둔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쇼핑하러 왔다가, 먹방까지 : 발길 붙잡는 맛있는 유혹

장터 나들이에서 먹는 재미를 빼놓으면 섭섭할 일이다. 이곳저곳 발길 옮기며 물건 고르는 재미에, 현장에서 갓 만들어낸 푸짐한 먹거리를 맛보는 즐거움까지, 장터 나들이가 더욱 풍성하다. 통계학과 부스에서는 오미자 에이드와 오르조 아메리카노, 미숫가루 등 다양한 음료와 함께 야채전과 김치전을 선보였다. 부스 앞을 오가는 동창들의 발걸음과 반가운 인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바자회 먹거리 코너의 활기를 더했다.

조형대 동창회 '녹미술랭'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콘셉트로 일일 분식집을 열었다. 튀긴 양파와 다진 오이 피클을 곁들인 큼직한 핫도그와 함께 부추전과 소떡소떡을 선보였다. 지난해 많이 사랑받았던 소떡소떡은 올해도 여전한 인기 메뉴. 이승은(동양 89, 조형대 동창회장) 동창을 비롯한 조형대 동창들이 녹미술랭 부스에 모여 소떡소떡을 굽고 전을 부치며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였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 하나 더요" 하는 목소리가 오가고, 익어가는 음식 냄새에 부스 앞도 점점 북적였다. 바



동창들의 전공과 재능을 살린 개성 있는 제품부터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 같은 상품'까지, 이화인의 솜씨가 담긴 다양한 제품들이 대바자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쁜 손놀림 사이로 웃음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마치 동창들끼리 즐거운 잔칫상을 차리는 듯한 풍경이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는 물리학과 부스에서도 풍겨왔다. 메밀전병과 떡볶이, 청귤과 오미자로 만든 에이드를 준비한 물리학과 동창회는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음식을 만들고 담아내느라 바쁜 손길을 이어갔다. 하나둘 부친 전이 바구니에 수북이 쌓이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손길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음료를 맛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춘 동창들의 얼굴에도 장터 나들이의 즐거움이 묻어났다.

익숙한 먹거리 사이에서 색다른 메뉴도 눈에 띄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베트남식 반미 샌드위치와 코코넛 커피를 마련해 이국적인 맛을 더했다. 융합보건학과에서는 유명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영천시장 달인 꽈배기를 한 봉지에 5,000원에 판매해 관심을 모았고, 작곡과에서는 아귀포를 준비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추석을 앞두고 화장품, 건강용품, 주방 용품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동창들의 관심을 받았다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동창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회학과의 벌꿀 젤라또도 다시 등장했다.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마련한 천연 벌꿀 젤라또는 벚꽃꿀, 밤꿀, 아까시꿀 등 세 가지 맛으로 준비됐다. 젤라또를 맛보려는 동창들로 부스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한쪽에서는 벌꿀을 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꿀 등급제를 알리기 위한 설문에 참여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또한 이올연합회 부스에서는 식혜와 미숫가루를 비롯해 천연 과일 에이드 등 다양한 음료를 준비해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목을 축이려는 동창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고, '2026 올해의 이화인' 부스에서는 현미 누룽지와 뺑과자, 꽃식초 등 자연의 맛을 담은 먹거리를 정갈하게 포장해 판매했다.

정성껏 만든 홈메이드 먹거리도 빠질 수 없다. 소비자학과에서는 토마토와 바질 등을 활용해 색감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남다른 수제 쿠키를 마련했고, 화학과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수제 호두파이와 바질페스토를 내놓았다. 김가연(화학 97) 동창과 조혜성(화학 87) 동창은 수북이 쌓인 파이와 바질페스토를 가리키며 "저희 과에서는 호두파이 70판, 바질페스토는 24개 준비했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직접 정성 다해 만들었어요"라며 웃었다. 재료 손질부터 굽고 포장하는 과정까지, 대바자회를 위해 지난 며칠 간 쏟은 정성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전공 따라 취향 따라 : 이화인의 솜씨와 감각이 담긴 개성 만점 별별 장터

동창들의 전공과 재능을 살린 개성 있는 제품부터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 같은 상품'까지, 이화인의 솜씨가 담긴 다양한 제품들이 바자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조소과에서는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정(조소 97) 동창의 장신구 브랜드 'd'Ariane(다리안)'을 만날 수 있었다. 원목 조각과 컬러 면실을 감기 기법으로 엮어 만든 장신구는 독특한 소재와 형태로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늘과 빛을 주제로 조각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최 동창의 작품세계를 장신구에 고스란히 담아낸 것으로, 특히 '다리안 긴목걸이' 등에서는 기존의 액세서리와는 구별되는 작가만의 유니크한











자폐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의 다양한 굿즈, 탄자니아 유치원 스쿨버스 마련을 위해 94세 영문과 동창이 직접 뜨개질해 기부한 곱디고운 아기옷과 모자, 로힝야 난민 여성이 만든 가방과 앞치마,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밀키트 등은, 작은 구매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감각이 돋보였다.

동양화과에서는 유소영(동양 93) 동창이 한국적인 모티프와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담은 다양한 생활소품을 선보였다. 인테리어용 포스터와 엽서, 마우스패드, 에코백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 작품을 감상하듯 고르는 재미와 실용성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수학과 부스에서는 규방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수경(수학 91) 동창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삼베와 자수실을 활용해 전통적인 색감과 디자인을 살린 규방공예 액자는 단아하면서도 정감 어린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지난해 제8회 대한민국 규방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으며, 윤 동창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공예를 하게 됐다"는 재치 있는 이야기로 부스에 웃음을 보탰다.

디자인대학원 동창회 '그린그린'에서는 전공을 살린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을 선보였다. 검은색 프레임 안에 은은한 빛의 자개 달항아리를 담아낸 인테리어 액자와 이화 배꽃 장식을 곁들인 작은 주머니 가방 등 소담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소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섬세한 디테일과 감각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제품들이었다.

동창들이 직접 디자인한 상품들도 빼놓을 수 없다. 간호대학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와 주얼리를 준비했고, 정치외교학과에서는 'whatever cheers' 로고를 넣어 디자인한 유리컵을 내놓았다. 통계학과에서는 정유미(통계 94) 동창이 뛰어난 뜨개질 솜씨로 만든 손뜨개 가방과 캐릭터 키링을 여러 점 선보였다. 도예과에서는 재학생들이 빚어낸 수십 점의 수제 도자기 작품을 판매했다. 학생들의 감각과 손길이 담긴 크고 작은 컵과 그릇, 생활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융합보건학과에서는 한숙원(융보 69) 동창이 직접 펴낸 자전적 에세이 『너희들도 곧 내 나이가 될 거다』(좋은땅, 2024)를 선보였다.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소소한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이처럼 이화 동창들의 예술적 감각과 재능은 대바자회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작품과 생활소품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품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손으로 만든 제품, 자신의 삶과 기억을 글로 풀어낸 에세이까지, 이화인들의 다채로운 감각과 솜

씨가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동창들에게 알리는 이화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섬유예술과에서는 올 8월 이화를 졸업한 '새내기' 강진구(섬예 26) 동창이 자신이 만든 화장품 브랜드 '청해율'을 소개했다. 두피 앰플을 직접 고객에게 발라주며 열심히 제품을 설명하는 강 동창은 "어릴 때부터 뷰티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화장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문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진민(국문 86) 대표가 이끄는 아이소이의 수분크림과 세럼, 립밤 등 다양한 화장품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직접 만든 브랜드부터 동창 기업의 제품까지, 대바자회를 통해 이화인들의 다양한 도전과 결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추석 준비도 대바자회에서 : 참기름부터 보리굴비까지, 명절 선물 한자리에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전통 먹거리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 직접 담그고 짜고 만들어 온 식품부터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지역 특산품까지, 명절 밥상과 선물에 어울리는 먹거리들이 바자회 곳곳을 풍성하게 채웠다.

이올연합회에서는 주성희(의직 74) 동창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전통 식료품을 내놓았다. '음식으로 배우는 주성희의 지혜교실'이라는 이름 아래 흑임자죽가루와 쥐눈이콩가루, 흑임자참기름, 조선간장 등을 준비해 동창들과 만났다. 수학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국산 김치를 판매하며 현장에서 주문을 받았다.

신학대학원에서는 방앗간에서 직접 짜온 참기름과 들기름, 깨소금을 깔끔한 선물용 박스에 담아 추석 선물로 내놓았다. 여기에 '방금 공수해 온'이라는 판매 문구와 함께 푸짐한 봉지에 담겨 나온 '강릉 갈골 한과'도 한 봉지에 1만 원이라는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까지 더해져 동창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무용과에서는 발효명인 이현숙 장인의 전통 재래식 된장을 큼직한 통에 푸짐하게 담아 선보였는데, 된장의 짙고 구수한 빛깔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다. 제주도 청귤로 직접 만든 수제 청귤청도 함께 내놓아, 전통의 깊은 맛과 제주 청귤의 상큼한 풍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과 부스에서 준비한 도시락김 세트와 유기농 올리브유 등 실속 있는 명절 선물도 동창들의 관심을 모았다. 섬유예술과에서는 7년째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아 온 법성포 보리굴비 세트를 판매했다.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보리굴비가 추석 밥상은 물론 선물용으로도 잘 어울려 보였다.



사고, 나누고, 함께 돕다 : 대바자회에 담긴 나눔의 가치

이번 대바자회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넘어, 작은 구매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만날 수 있었다. 영문과 부스에서는 탄자니아 남부 린디 지역의 유치원 선교사업을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었다. 박경화(영문 76) 동창은 "린디 지역에 내년에 유치원을 개원해요.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아이들 스쿨버스 마련하는데 사용할 거에요"라며 이 뜻에 마음을 보탠 특별한 기증품이 있다고 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94세 김신복(교육 57) 동창이 선교를 위해 정성껏 손뜨개한 아기옷과 모자 등 100여 점의 작품을 보내온 것. 박 동창은 "아기옷이 너무 예뻐서 벌써 많이 팔렸다"며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오늘의 이화로 성장한 것처럼, 린디에도 작은 씨앗을 심어 '또 하나의 이화'가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소과 부스에서는 말레이시아 페낭의 로힝야(Rohingya) 난민 여성들이 만든 가방과 앞치마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선보였는데, 아름다운 핸드 프린팅 원단을 활용해 난민 여성들이 직접 바느질해 만든 것들이다. 이지윤(조소 01) 동창은 "수익금은 난민 여성들의 자립과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데 쓰여요. 저도 직접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품질이 좋아요"라고 설명했다. 가방마다 제품을 만든 여성의 사진이 담긴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얼굴까지 함께 만나는 듯한 정겨움이 있었다.

경영대에서 판매한 '이태원 라볶이' 밀키트와 호두과자에도 나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선교사인 하윤희(경영 90) 동창이 '바라카 작은도서관'의 이주 여성들과 함께 대바자회에 나와 그 의미를 전했다. 하 동창은 "바라카 작은도서관은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이주민 엄마와 아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2018년 시작한 이후 한국어교실과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이주 여성들과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 교육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라볶이 한 봉, 호두과자 한 알, 익숙하고 친근한 먹거리를 고르는 일이 이주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된다. '바라카'는 아랍어로 '축복'을 뜻한다.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특수교육과 부스에서는 올해도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자폐인 디자이너 양성과 고용을 연계하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가 마련한 자리로, 지난 5월 '빛나는 이화인' 상을 수상한 이소현(특교 83) 동창도 오티스타 직원들과 함께 나와 제품을 소개했다. 부스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직접 디자인한 유리컵부터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그려진 다양한 생활소품까지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나하나 다른 표정과 개성을 가진 귀여운 캐릭터에 이끌려 제품을 고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작품을 만든 디자이너에게도 관심이 간다. 개성 넘치는 작품을 구경하고 고르는 사이, 디자이너들의 창작 이야기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부스였다.

바자회의 실속 쇼핑 : 건강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바자회장을 둘러보다 보면 꼭 필요한 생활용품부터 건강과 미용을 위한 제품까지, 평소 눈여겨보던 물건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올해도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부터 집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까지 실용적인 상품들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면 '이건 사야겠다' 싶은 물건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고, 장바구니도 채워진다.

생명과학과에서는 지난해에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바이오드론, 로터스선, 에이지리턴 등 전문 기능성 화장품을 내놓았고, 인공지능대학에서는 눈썹 영양제를 판매했다. 약학과에서는 전공을 살린 건강기능식품을,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오메가3를 준비했으며, 간호대학에서는 닥터디퍼런트 화장품을 판매했다.

생활에 바로 쓰이는 제품들도 빠지지 않았다. 가정관리과에서는 가정용 살균·소독제 세트를, 소비자학과에서는 국자와 뒤집개 등으로 구성된 실리콘 주방도구 세트를 내놓았다. 무용과에서는 가성비 좋은 프라이팬 세트를 판매해, 실용적인 살림용










5,000원 미만의 알뜰상품 코너, 아나바다 장터, 파격적 할인 상품들이 동창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품을 찾는 동창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부터 그릇과 생활잡화까지 패션과 생활을 아우르는 상품들도 많았는데, 독문과, 국문과, 중문과에서는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 그릇, 생활잡화 등 다채로운 상품을 마련해 부스를 알차게 꾸몄다. 특히 불문과는 '프렌치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액세서리와 그릇, 서적 등을 판매해 작은 벼룩시장을 구경하는 듯한 재미를 더했다.

사학과에서는 오브엠 구두와 운동화를 내놓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찾는 동창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가격까지 알뜰한 상품들도 눈에 띄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여성 속옷을 상의 1만 원에 4장씩, 하의 5,000원에 4장씩 판매했고, 대학원 동창회에서는 카레와 초고추장, 굴소스 등 평소 자주 쓰는 식료품을 2,000~3,000원의 부담 없는 가격에 내놓았다. 꼭 필요한 물건을 골라 담고 가격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재미, 바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보물찾기 하듯 즐기는 아나바다 장터 : 구경하는 재미, 건지는 재미

어떤 물건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아나바다 장터.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숨은 보물 같은 물건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득템'은 아나바다 부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올해도 여러 부스에서 운영한 아나바다 장터에는 옷과 가방, 신발부터 생활용품과 작은 소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며 보물을 찾듯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경제학과, 피아노과, 한국음악과, 종교음악과 부스에서는 구제 의류와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내놓았고, 올해로 9년째 아나바다 대표 부스로 참여한 관현악과도 동창들이 기증한 생활용품과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판매했다.

심리학과 부스에서는 행주걸이와 민화집, 안경끈, 배낭, 앤틱 소품 등 실용적인 물건부터 재미있는 소품까지 다양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심리학과 동창들이 대바자회를 위해 일 년 동안 물건을

하나둘 모아두었다가 이날 함께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혜석(심리 93) 동창은 "바자회 덕분에 동창들끼리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일 년 동안 바자회 생각하면서 물건도 모으고, 또 바자회 때 만나서 같이 준비하고요"라며 웃었다.

인공지능대학에서는 황정인(컴공 90) 동창이 딸의 애장품이었던 키링 수십여 개를 가지고 나와 1,000원에서 3,000원의 가격에 판매했다. 작고 귀여운 키링을 하나씩 골라보는 동창들의 모습에서 물건의 새로운 주인과 쓰임을 찾아 주는 아나바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나고, 이화를 만나는 기분 좋은 하루

점심 무렵이 가까워지면서 대바자회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동창들이 다음 부스로 향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춰 친구와 이리저리 살펴보다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곳곳에 넉넉하게 마련된 EAT ZONE과 REST ZONE은 잠시 쉬어가려는 동창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졌다. 먹거리 부스에서 '건져온' 뜨끈한 전과 매콤한 떡볶이를 앞에 두고 앉아, 쇼핑 이야기부터 안부까지 한바탕 수다꽃을 피우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해마다 총동창회 대바자회를 찾는다는 정귀인(무용 75) 동창은 "저는 대바자회를 손꼽아 기다려요. 갈수록 물건도 다양해지고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굉장히 재미있고, 모교에 올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아요. 대바자회뿐 아니라 더 다양한 동창회 이벤트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학교에 더 자주 오게 되고 동창회에 관심도 더 갖게 되니까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대바자회에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풍경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많은 학과와 단체가 대바자회 홈페이지에 판매 물품과 가격, 부스 위치 등을 미리 소개했고, 일부 부스에서는 사전 구매와 온라인 판매까지 진행했다. 경영학과 동창회는 별도의 '2026 경영대학 동창회 바자회' 사이트를 마련해 상품을 자세히 소개하고 사전구매와 온라인 주문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계좌이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결제용 QR코드를 마련한 부스도 여럿이었다. 해마다 이어져 온 장터에 새로운 방식의 쇼핑 풍경이 더해진 셈이다.

대바자회 한편에서는 재학생 후배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이어졌다. 통계학과에서는 허니라이크 칫솔 30개를 사은품으로 준비했고,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에서는 '선배가 쏜다' 이벤트를 열어 선착순 200명의 재학생 후배들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제공했다. 선배들이 준비한 커피 한 잔과 작은 선물을 받으며 재학생 후배들도 대바자회의 즐거움을 함께했다.

6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대바자회는 올해도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를 넘어 동창들이 만나 안부를 전하고, 각자의 솜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모교와 다시 연결되는 자리가 되었다. 여기에 온라인 사전 구매, 장터 안내 맵, QR결제처럼 달라진 장터의 풍경까지 더해지며 대바자회는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더해가고 있었다. 무엇을 살지 둘러보는 즐거움, 오랜 동창을 만나는 반가움, 그리고 모교에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기쁨이 한데 어우러진 것. 대바자회가 해마다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제1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열두 해째 이화동산에 번진 웃음, '친구와 함께'로 완성한 가을 하루

9월 19일(토) 오전 10시, 이화의 가을 교정에 또 한 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이하 그림대회)'가 올해로 열두 번째 문을 열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캠퍼스 곳곳의 나무들은 슬며시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대강당 입구로 이어진 줄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도착한 아이들의 얼굴마다 설렘이 가득했다. 대회 시작을 한참 앞둔 9시 10분경 이미 도착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11시가 다 되어서야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가족도 있는 등, 온도 차는 있었지만 오늘 하루를 즐거운 추억으로 채우겠다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았다.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코너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설렘과 우정을 화폭에 담은 아이들의 한나절

누구보다 먼저 교정에 발을 디딘 가족은 김지우(영문 07) 동창과 딸 한유진(초등) 양이었다. 동네에 사는 동창 친구의 권유로 처음 등록했다는 김지우 동창은, 주변에서 늘 추천을 받았지만 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이번에야 첫걸음을 하게 됐다고 했다. 너무 일찍 도착한 덕분에 모녀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 이화동산을 한 바퀴 둘러보는 여유를 누렸다. ECC 건물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엄마, 진짜 멋있다"고 감탄하던 딸의 모습에, 자신이 다녔던 학교를 아이에게 직



접 보여주는 기분이 남달랐다고 그는 전했다. 일찍 온 만큼 페이스 페인팅도 첫 순서로 받은 모녀는 남들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대강당 주위를 돌며 그림 그리기 좋은 자리를 찾던 오소연(생미 10) 동창의 가족도 눈에 띄었다. 작년에 참가했던 동기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는 그는 아들 정윤수(초등), 윤재(유치) 형제와 함께 학생문화관 앞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명당 자리를 선점했다. 2년 전 학교 뮤지컬 관람 이후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모교 교정을 걸어본다는 그의 곁에서, 큰아들 정윤수 군은 "학교가 정말 멋지고 기분이 최고예요. 오늘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벌써부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동창과 어린이들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이화 교정을 누비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한편, 올해 그림 그리기 대회 주제인 '친구와 함께'를 다양한 색채와 창의적 표현으로 회폭에 담아냈다

이날 그림대회의 주제는 당일 본부석에서 처음 공개됐다. 올해의 주제는 '친구와 함께'. 아이들은 초록빛 잔디밭 위에 옹기종기 자리를 잡고, 세월을 품은 고풍스러운 석조건물과 멋진 조경을 배경 삼아 저마다의 도화지를 채워나갔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그림그리기는 12시 30분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오늘 하루 함께한 친구와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 넣었다. 완성된 작품은 대강당 입구 왼편에서 제출한 뒤, 총동창회가 정성껏 준비한 런치 박스와 간식을 받아 가는 것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심사는 강승주(조소 87) 전 조형대학 동창회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이승은(동양 89) 조형대학 동창회장과 황정아(동양 93) 동양화과 동창회장이 심사위원으로 함께 했다. 세 심사위원은 점심시간 동안 대강당 안에서 아이들이 두고 간 마음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엄마에서 아이로 이어진 인연, '소띠 맘' 모임의 특별한 동행

올해 그림대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소띠 맘' 모임 동창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 '이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모토로 한 재학생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이화이언'을 모태로 한 이 모임은,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같은 해에 아이를 낳은 동창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만든 띠별 오픈채팅방에서 시작됐다. 임신 때부터 시작된 교류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고, 이날 행사에는 2021년생, 여섯 살 아이를 둔 소띠 맘 동창들 20여 팀이 유치부 부문에 대거 참여해 반가움을 나눴다. 현재 200~300명의 동창이 이 모임에서 활동 중이며, 같은 지역에 사는 동창들끼리는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만남의 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딸 윤채이(유치) 양과 함께 참가한 장보희(생명 10) 동창은 올해로 두 번째 참가했다. "작년에는 아이가 다섯 살이라 아무 준비 없이 왔었는데, 올해는 친구들도 같이 온다고 아이가 먼저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소띠 맘 채팅방에서 소식을 알게 돼 신청했어요"라며 웃었다. 그의 말처럼, 올해 대회에는 유독 여섯 살 아이를 둔 소띠 맘 동창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딸 성리아(유치) 양의 손을 잡고 온 성민진(과교 13) 동창은 이 모임이 가져다준 특별한 인연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학교 다닐 때는 전공도 다르고 졸업 연도도 달라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이였는데, 소띠 맘 방을 통해 가까이 산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 친구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채이와 리아는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친구였던 셈이죠. 오늘도 네 가족이 함께 왔는데,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이 꽤 많더라고요." 아들 고정현(유치) 군과 함께 참가한 김예솔(사교 13) 동창도 이 모임의 진가를 짚었다. 방장이 이화 출신임을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는 이 모임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둘째·셋째를 낳은 선배 엄마들이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육아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컸다고 했다. "오늘 와보니 소문대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묻어났다.



웃음소리 번진 체험의 장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

본부석 주변에 마련된 체험 코너는 오후 2시 마감 직전까지 대기 줄이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였다. 삐에로 복장을 갖춰 입은 풍선 아티스트는 꽃 모양부터 동물 모양까지, 아이들이 고른 샘플을 따라 쉴 새 없이 손을 놀렸다. 풍선 아트 체험 대기 줄에 딸 이혜리(유치) 양과 함께 서 있던 유은혜(피아노 14) 동창을 만났다. 그는 "행사 소식은 작년에 알게 됐지만,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해 처



음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곁에 있던 남편도 "이런 가족 행사는 이화여대가 유일한 것 같다"며 "일찍부터 준비에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니 행사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만큼 아이도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보탰다.

두 명의 페이스 페인터가 운영하는 코너 역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었다. 얼굴과 손등에 저마다의 그림을 새긴 아이들은 대강당을 배경으로 자랑스레 인증샷을 남겼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부채 만들기 코너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부채에 스무 가지가 넘는 스티커와 매직펜, 네임펜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낸 아이들은, 직접 만든 부채로 한낮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냈다. 그 옆으로는 청포도와 블루베리 에이드, 아이스커피와 꽈배기를 저렴한 값에 파는 간식 부스도 마련돼 아이부터 어른까지 발길을 붙잡았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시상식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위) / 이번 대회 심사위원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표현력과 창조성이 얼마나 그림에 담겼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에는 대회 참가를 계기로 저마다의 사연을 풀어놓는 가족들도 많았다. 딸 박연우(초등) 양과 함께 온 양진우(경영 10) 동창은 아쉬움 반, 기대 반의 마음을 전했다. 첫째가 지금 6학년인데, 정작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코로나19로 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 늘 동생을 따라오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이면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그 아이에게도 엄마의 모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싶다"며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은 그림이 아니어도 글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니 '청소년 백일장' 같은 대회를 새로 열어 주시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조심스레 건넸다.

딸 강새봄(초등) 양과 함께 참가한 서유나(중문 10) 동창의 사연도 뭉클했다. 올해가 딸에게는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꼭 오고 싶었다는 그는, 20여 년 전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1년간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며 대바자회와 송년회 준비를 도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함께했던 선생님들을 오랜만에 마주하니 반가움이 앞섰고, 자신이 다녔던 학교를 딸에게 직접 구경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딸 새봄 양 역시 대강당을 오르며 "학교가 너무 예뻐서 저도 이화여자대학교 오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한마디에 모녀는 어느새 '선후배 사이'를 약속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시상식에서는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유독 다복해 보였던 한 무리 네 가족의 사연도 빼놓을 수 없다. 딸 이유주(유치) 양과 함께 온 배현정(불문 14) 동창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동창 네 가족과 함께 교정을 찾았다. 서로 육아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쌓아온 이들은 이날도 한 아이의 세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을 함께 돌보고 있었다. "그림은 적당히 최선을 다해(웃음) 그리고, 아이들과 실컷 놀다 가려고요"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인 그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큰딸 김지우(유치) 양과 둘째 세 쌍둥이의 엄마인 김지희(건축 15) 동창은 아빠까지 여섯 식구가 조용히(?) 다녀가려 했지만, 아장아장 걷는 세 쌍둥이 딸들이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을 신나게 즐기는 모습에 덩달아 즐거워졌다고 전했다. "둘째를 계획했다가 딸 셋을 한꺼번에 얻어 딸 넷의 엄마가 됐어요. 처음엔 걱정이 컸지만, 지금은 서로 놀고 다투는 모습마저 예뻐 보여요. 딸 부자가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대회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나눠준 런치 박스와 상장 및 상품. 여러 후원사와 동창들의 정성이 더해져 풍성한 상품을 전달했다

이화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상식

오후 2시, 대강당에서는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의 사회로 시상식이 열렸다.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아름다운 이화동산에서, 아름다운 이화가족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이 어린이들뿐 아니라 이화가족 모두에게 인생의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마음껏 뛰어논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해 대강당 안에는 잔잔한 공감의 박수가 이어졌다.

시상에 앞서 강승주 심사위원장은 올해 심사가 유독 어려웠다고 총평을 전했다. 완성도나 기법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표현력과 창조성이 얼마나 그림에 담겼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그는, 부모들에게는 아이 스스로 성의껏 자기 생각을 그릴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오늘의 대회가 아이들의 기억 속에 더 뜻깊게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날 시상에서는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각 5명씩, 총 50명의 어린이가 상장과 함께 이화 곰돌이 인형, 대회 배지, 기본 부상(다리아송 파우치, 이화 포스트잇 2종, 이화 아크릴 스탠드, 미니 색연필 세트, 애니멀 파우치)을 받았다. 부문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행복 가득 상'을 수여해 상장과 함께

기본 부상이 전해져, 이날 참가한 모든 어린이가 상장과 선물을 손에 쥐고 무대를 내려왔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상장과 선물을 든 채 시상대 위에서 저마다 멋진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느라 한참을 분주했다.

이번 대회는 여러 후원사와 동창들의 정성이 더해져 더욱 풍성했다. 런치 박스는 ㈜크라운 해태제과의 과자 4종과 이경희(약학 88) 동창이 후원한 뽀로로 비타민 젤리, 서울식품공업㈜의 쿠키 4종에, 총동창회가 마련한 라본느 타르트 샌드위치와 소금빵, 오봉도시락의 치즈김밥과 물, 그리고 타포린 가방으로 구성됐다. 선물 가방에는 모교 대학본부가 진행하는 '동창 정보 업데이트' 이벤트 안내문도 함께 담겨, 선착순 50명에게 커피 상품권을 증정하며 참여 동창들의 정보 갱신을 독려했다.

가을 햇살이 이화동산 위로 길게 늘어질 무렵, 아이들은 저마다의 상장과 선물을 품에 안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열두 해째 이어져 온 이 축제는 세대와 전공, 졸업 연도를 뛰어넘어 동창들을 다시 이어 주고, 그 곁의 아이들에게까지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를 선사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어 줄 것이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후원이사를 모십니다

총동창회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는 이화 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회비는 연 100만 원(이상)입니다.

총동창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바탕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모교발전기금 전달, 각종 사업(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동창의 날 기념행사 및 합창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빛나는 이화인' 및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대바자회, 국내 및 해외 지회 순방,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이화인의 밤' 행사 개최, 《이화동창》 회보 발간 등)을 통해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화,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의 주인이자 힘의 원천은 바로 '이화 동창'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만나고 싶었습니다 /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제인 오 동창

이화에서 화성까지, 경계를 넘어 길을 만들다

아홉 살 소녀가 TV 앞에서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을 바라보았다. 인간이 달에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때 그 소녀는 알지 못했다. 훗날 자신이 미국항공우주국(이하 NASA)에서 일하며 인류의 또 다른 행성 탐사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소녀가 바로 제인 오(Jane Oh, 한국명 장미정(영문 83)) 동창이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에서 컴퓨터와 공학을 공부한 뒤 GM과 포드, 대학교수를 거쳐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를 비롯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를 이끌어 온 그는 NASA 우수공로훈장을 받았고, 2015년에는 여성 최초로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이력만이 아니다. 영문학에서 공학으로, 기업에서 대학으로, 다시 NASA로. 예측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온 삶이다.

44년 만에 부른 이화의 교가

이화 1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받은 제인 오 동창에게 모교 방문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44년 만에 교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에게 그 순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느냐고 물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대강당에 모여 예배를 보았어요.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이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이화 교정에서의 자신을 "조용하게 여러 방면으로 미래를 그리며 평범하게 지낸 학생"이었다고 회상한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권장되지 않았던 시절, 그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돌아보면 이화에서의 시간은 이후 그의 삶을 떠받친 하나의 토대였다.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좋은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서로 돕고 감사하며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화

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NASA의 정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리더로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문학도, 공학의 세계로 들어가다

제인 오 동창의 이력만 보면 치밀하게 설계한 인생 계획이 있었을 것 같지만, 정작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하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저에게 많은 일들이 운명처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던 그는 이화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며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쌓았다.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컴퓨터 분야에 도전했다. 전공자가 아니었기에 석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학부 전공과목부터 다시 이수해야 했지만 자신이 있었다.

석사학위를 받은 뒤 GM의 Electronic Data Systems에서 약 5년간 일하며 엔지니어들과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미시간대학교 앤아버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포드에 매니저로 스카우트됐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길이 열렸다. 대학교수 자리였다. 가르치는 일 역시 그가 원했던 역할이었기에 기꺼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공과대학장이 보낸 이메일에는 여름방학 동안 NASA에서 함께 연구할 교수를 찾는다는 내용이 담

영문학도에서 공학도로, 기업에서 일하다 대학교수를 거쳐 NASA의 과학자로, 도전과 열정으로 길을 만들어 왔다



겨 있었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보았던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지요."

아홉 살 소녀의 마음에 들어왔던 우주가 수십 년이 지나 다시 그를 불러낸 순간이었다. 그는 지원서를 냈고 합격했다. NASA에서 연구를 시작한 뒤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합류했고, 수석 엔지니어로 오늘에 이르렀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담당한 제인 오 동창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처음부터 예정된 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길에서 쌓은 경험은 다음 길을 여는 자산이 되었다. 영문학에서 익힌 언어와 소통, 기업에서 쌓은 실무 경험, 박사과정에서 배운 연구, 학생들을 가르치며 익힌 설명과 조율의 능력은 결국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힘이 되었다.

과학은 노력에 응답한다

제인 오 동창에게 과학은 어쩌면 오랜 노력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세계이자, 오늘의 작은 아이디어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한 걸음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하고 수없이 검증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다시 돌아가 수정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하나씩 줄여나간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쌓이면 하얀 종이 위에 그려졌던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탐사선이 되어 지구를 떠난다. 제인 오 동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순간의 감격을 아이를 낳아 처음 품에 안는 기쁨에 비유했다.

결코 한순간의 환희가 아니다. 그 뒤에는 오랜 준비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기다림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수많은 계산과 토론, 설계와 검증, 수정과 협업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다. 그의 삶에서 과학은 '천재의 번뜩이는 한순간' 보다는 오랜 노력과 협업이 마침내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하얀 종이 위의 아이디어가 실제 탐사선이 되고, 그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 화성에 내려앉는다. 노력과 결과 사이의 긴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그 결과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그가 과학에서 발견한 기쁨인지도 모른다.

"퍼서는 우리 베이비입니다. 우리 베이비를 먼 타지에 보냈으니 365일 항상 걱정이지요. 매일매일 받는 데이터를 보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아프지는 않은지, 고쳐 주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를 '우리 베이비'라고 부르는 짧은 표현에는 오랜 시간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엔지니어의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앞서 탐사선의 탄생을 '9개월 동안 품은 아이를 마침내 안았을 때의 환희'에 비유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얀 종이 위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수년에 걸쳐 완성한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 마침내 화성에 안착하는 순간, 탐사선은 그에게 단순한 기계 이상의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준비하는 또 하나의 도전은 퍼서비어런스가 수집한 화성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언젠가 지구로 가져와 연구하는 일이다.

"화성의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면 과학자들이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생명체가 없어졌는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 원인을 찾게 된다면 지구를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의 시선은 화성을 향해 있지만 질문의 끝에는 결국 지구가 있다. 화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고 지키려는 것이다.

언젠가 화성의 돌과 흙이 지구에 도착하는 순간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동료들과 열심히 노력한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기쁨이 더해지겠지요."

개인의 성취보다 '동료들과 함께한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의 답변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시 한번 드러난다. 그가 미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었다.

"회의에 들어오면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관심 있게 들어주고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NASA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그가 발견한 리더십은 이화에서 배운 정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젊은 시절 대강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던 이화의 기억과, 오늘날 NASA의 회의실에서 동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그의 삶 안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가슴을 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말해 주세요

2015년 모교와의 인터뷰에서 제인 오 동창은 후배들에게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너무 일찍 확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재능과 잠재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정한 전공이 평생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문학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았고, 컴퓨터를 공부했다고 해서 한 분야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기업에서 일하다 박사과정에 도전했고, 기업의 매니저에서 다시 대학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을 보고 NASA의 문을 두드렸다. 기회가 왔을 때 '내 전공이 아니니까' 라며 문을 닫지 않았다.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경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책만 읽기보다는 내 손과 다리, 가슴이 내 머리와 같이 가는지를 경험하면 스스로 열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인 오 동창이 수많은 진로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해 온 방법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을 묻자 "은퇴해서 소파에 누워 한국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는 저를 상상해 봅니다"라는 소박하고 유쾌한 답이 돌아왔다.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을 바라보던 아홉 살 소녀의 호기심은 수십 년의 노력과 투지, 끈기를 만나 마침내 화성에 닿았다. 제인 오 동창에게 과학은 오랜 노력에 응답하는 세계이며, 오늘의 작은 아이디어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화동창》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가슴을 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어쩌면 이 말은 제인 오 동창이 수많은 도전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오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건넸던 말인지도 모른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짧은 자기 격려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나아가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달을 바라보던 아홉 살 소녀가 화성에 닿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믿고 다독이며 걸어온 시간 속에 제인 오 동창의 그릿이 있다.

글 · 최정은(커미부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우리는 이화가족 /
외증조할머니부터 증손녀까지 4대 이화가족

86년의 시간을 이어온 이화, 그곳에 가면 엄마가 있다

이화 140주년을 맞아 열린 '이화가족 찾기' 행사에 참석한 이한나·박주미 동창 가족

이한나(화학 92) 동창에게 '이화'는 대학 이름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다. 외할머니 고 장명희(음악 40) 동창을 시작으로, 어머니 고 박선경(불문 67) 동창, 딸 박주미(사회 26) 동창까지. 1940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86년, 4세대의 시간이 '이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이화 140주년을 맞아 모교에서 진행한 '이화가족 찾기'에서 이들 가족은 4대 이화가족으로 선정됐다.

1세대 고 장명희, 이화의 씨앗을 심다

가족의 첫 이화인으로서 1세대인 고 장명희 동창은 1940년 이화여전 음악과를 졸업했다. 남편 역시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집안에는 늘 음악이 가까이 있었다. 이한나 동창은 어머니(고 박선경 동창)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외가에는 어려운 시절에도 나름의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 장명희 동창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들을 키워야 했다. 한국전쟁 때는 피란지 대구에서 음악 교사로 일했고, 이후 피아노 교습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쉽지 않은 형편에서도 자녀들의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짐 지우기보다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키웠다. 자녀들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큰딸(이한나 동창의 이모 고 박미경 동창, 영문 63)에 이어 고 박선경 동창을 이화인으로 만들었다. 이한나 동창의 일가에는 이들 외에도 여러 이화 동창이 있다. 이화와의 인연이 직계 4대를 넘어 집안 곳곳으로 이어진 셈이다.

2세대 고 박선경, 청춘의 꽃을 피우다

2세대 이화인은 고 박선경 동창이다. 1967년 불문과를 졸업한 그는 전쟁 이후 넉넉지 않았던 대학



2011년 10월 30일 고 박선경 동창은 생일을 맞아 딸 이한나 동창, 손녀 박주미 동창과 이화 교정을 방문했다. 이 사진은 고 박선경 동창과 손녀 박주미 동창을 찍은 것이다



2022년 10월 30일 고 박선경 동창의 생일, 이한나 동창은 그해 대학에 입학한 딸 박주미 동창과 함께 이화 교정을 찾아 11년 전 어머니가 손녀와 사진을 찍은 같은 장소에서 딸과 사진을 남겼다

시절을 딸 이한나 동창에게 종종 들려주었다. 제대로 된 교과서를 구하기 어려워 교수님이 나눠준 프린트와 공책을 들고 공부했지만, 젊은 날의 이화는 평생 마음속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다. 졸업 후에는 결혼해 전통적인 대가족 안에서 며느리이자 아내, 어머니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었던 시절이라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볼 여유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계절이 바뀔 때면 유난히 이화의 교정을 그리워했다. 불문과 학생이라는 이유로 '마드모아젤'이라 불리고, 인기를 누리던 시절. 친구들과 웃고 공부하며 마음껏 젊음을 누렸던 이화의 교정은 고 박선경 동창에게 오래도록 돌아가고 싶은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다.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사위였다. 이한나 동창의 남편은 장모님(고 박선경 동창)을 모시고 종종 이화로 드라이브를 갔다. 가족이 차를 타고 교정을 한 바퀴 돌고, 헬렌관 1층에 있던 카페 '아름뜰'에 앉아 차를 마셨다. 봄꽃이 피고 가을 낙엽이 질 때면 그 시간은 더욱 특별했다. 가족에게는 평범한 나들이였겠지만 고 박선경 동창에게는 잠시나마 한 집안의 며느리와 어머니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스무 살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차에는 어린 박주미 동창도 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빠 차를 타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돌며 외할머니와 엄마께서 각 건물을 소개해 주시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간호대 건물로 바뀐 헬렌관처럼,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서 두 분이 기억하는 건물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름뜰(현 블루포트)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를 타고 정문 앞을 지나가면서 보이던 수많은 옷가게들과 이대생들이 신기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3세대 이한나, 이화 사랑의 가지를 뻗다

3세대 이화인 이한나 동창의 선택은 또 조금 달랐다. 처음부터 이화 진학만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여성의 고등교육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와 이화 출신 여성들이 여럿 있었던 외가의 분위기 속에서 이화는 늘 친숙하고 좋은 대학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일상에서 자리하고 있던 그 친숙함이 이화를 선택하게 했다. 재학

시절보다 졸업 이후 이화 사랑이 오히려 깊어졌다. 이화의 이름이 이 동창 진로를 더 빛나게 하는 후광 효과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딸, 박주미 동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한나 동창은 '걸어 다니는 이대 홍보대사'라고 할 만큼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이화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그가 이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후배들'이다. 학교의 명성이나 오랜 역사도 자랑스럽지만, 옳지 않은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후배들의 모습이 그렇게 대견할 수 없었다.

"이런 후배들이 있는 학교를 내가 나왔구나."

이화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자랑스럽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다시 그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이 더욱 기뻤다.



2012년 인사동 전시장으로 나들이 간 3대 모녀(고 박선경, 이한나, 박주미 동창)

4세대 박주미, 이화에 새롭게 피어난 꽃

4세대인 박주미 동창은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여성학을 부전공했다. 야생조류연구회와 총연극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학 생활을 채웠다. 딸의 대학 생활을 지켜본 이한나 동창은 자신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학교를 누비는 딸이 신기하고 대견했다. 이화 안에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딸이자 후배를 바라보며, 이한나 동창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화가 딸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4대 이화가족의 역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은 이화역사관 도슨트다. 박주미 동창은 "4대째 이대를 다니고 있어 나 자신이 살아 있는 이화의 역사 같다"는 생각으로 도슨트에 지원했다. 이화의 역사를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다 보면 가족의 첫 이화인인 외증조할머니 고 장명희 동창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현재와 포개진다. 이화여자전문학교 시절을 설명하며 당시 학생들의 사진을 바라볼 때면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교복을 입고 있던 젊은 외증조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참 묘한 인연이다. 1940년 이화여전에서 공부했던 한 여학생의 증손녀가 80여 년 뒤 같은 교정에서 이화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외증조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젊은 날이었던 역사가 증손녀에게는 직접 설명하고 전하는 역사가 되었다. '4대 이화인'이라는 말이 단순한 졸업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순간이다.

같은 이화, 서로 다른 길

1940년 고 장명희 동창이 이화여전에서 공부하던 시대와 2026년 박주미 동창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오늘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나 4세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는 닮았다. 삶이 어려워도 배움을 놓지 않았고, 딸이라는 이유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다음 세대가 자기 삶을 당당하게 선택하도록 밀어주었다는 점이다. 고 장명희 동창이 딸들을 그렇게 길렀고, 그 마음은 딸과

손녀, 증손녀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어졌다.

딸들은 엄마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1세대는 음악, 2세대는 불문학, 3세대는 화학, 4세대는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4세대가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전공도 관심사도 제각각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가족다운 모습인지도 모른다. 학교는 같았지만 누구도 앞사람의 삶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다.

이화에서 만나는 엄마, 그리고 할머니

이한나 동창에게 이화는 그 모든 의미에 앞서 아주 개인적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이화는 엄마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젊은 날의 교정을 그리워하던 어머니. 사위의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서면 옛이야기가 많아지던 어머니. 아름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대학생 박선경으로 돌아갔을 어머니는 이제 곁에 없다. 하지만 이한나 동창에게 이화의 봄과 가을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시간이 머물러 있다.

그 시간 위를 이제 딸 박주미 동창이 걷는다. 어린 시절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외할머니와 엄마의 이화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이화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하고 있다. 게다가 이화역사관에서는 자신보다 3세대 앞선 외증조할머니의 시대까지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외할머니 고 박선경 동창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86년 동안 캠퍼스의 모습도, 여성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이화는 여전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응원과 믿음의 공간이다. '4대 이화인'이라는 기록이 특별한 것은 네 사람이 같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1세대 고 장명희 동창이 심은 배움의 씨앗은 고 박선경 동창의 청춘에서 꽃을 피웠고, 이한나 동창의 깊어진 이화 사랑을 따라 가지를 뻗었다. 그리고 이제 박주미 동창이라는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4세대는 같은 이화를 다녔지만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다. 음악에서 불문학으로, 화학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으로 관심과 선택은 달라졌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다음 세대가 더 넓은 세상을 선택하도록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세대를 건너 이어졌다.

아직 이 가족의 이화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젠가 또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뒤, 다섯 번째 이화인이 이 교정을 걷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1940년 고 장명희 동창이 심었던 작은 씨앗은 100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 비로소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외증조할머니보다도 더 먼 세대의 이야기가 된 네 여성의 삶이, 오래된 가족사진처럼 이화의 역사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한나 동창에게 그 긴 가족의 역사는 먼 미래보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화의 교정을 그리워했던 어머니, 사위의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서면 다시 대학생처럼 옛이야기가 많아졌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이제 곁에 없지만 이화의 봄과 가을에는 여전히 그 시간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세대의 이화인이 더 이어진다 해도, 이한나 동창에게 이 86년의 이야기를 가장 짧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화, 그리고 엄마.

글 · 최정은(커미부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총동창회 소식

1 대바자회 진행 상황 보고와 총동창회에서 새로 제작한 기념품 홍보

2026년도 8월 정기임원회가 2026년 8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0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원들은 9월 15일(화) 열릴 예정인 총동창회 주최 '대바자회'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각종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김구슬(법대·법전원 93) 재정부장은 바자회 장소는 지난해와 같이 생활환경관 및 학생문화관 주변 광장이긴 하나 먹거리 장터 및 몇 군데 위치가 달라질 예정이라며 최종 배치도는 9월 정기임원회에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무국에서 준비 중이고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9월 19일(토) 개최되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온라인 접수 시작 당일에 유치부 신청은 모두 마감되었지만 간혹 입금 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원보다 조금 더 접수를 받는다고 안내하고, 초등부는 95%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이 행사는 젊은 동창들이 가족 단위로 참가하여 서로 다른 세대 동창들을 동창회에 유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고, 행사 당일에 자원봉사 가능한 임원은 사무국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하반기 총동창회 주요 행사인 '이화인의 밤' 행사와 관련하여 '다리아 송' 디자인의 티켓 실물을 공개하고 9월 정기임원회에서 배부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수년째 샘표, 아이소이, 서울식품공업, 동화약품 등이 꾸준히 협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협찬 가능한 기업을 연결해 주면 공문을 발송하겠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기타 안건으로, 총동창회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전시하는 쇼케이스를 8층 총동창회 사무국 복도에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황화방'에 쇼케이스 한 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리며, 기념품 구매를 원하면 8층에 올라와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념품을 많이 제작했다며 홍보를 부탁했다. 또한 총동창회 사무국이 위치한 8층 복도 입구에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하여 총동창회 활동을 게시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면 수록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2 신입 동창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

총동창회는 2026년 8월 28일(금) 오전 11시부터 대강당 아래 광장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신입 동창(2026년 8월 졸업)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신입 동창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를 한 총동창회 임원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졸업생 선물 배부처' 안내 현수막을 내건 노란 천막을 설치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포스트잇과 축하 카드, 볼펜, 총동창회 안내문을 담은 기념품 500세트를 전달하였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학위복을 착용하고 대강당을 나서는 신입 동창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따뜻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은주(특교 79)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무, 김구슬 재정부장, 백기엽(특교 00) 서기, 배지연(기독 00) 지역부장이 함께 참여해 신입 동창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3 하반기 주요 행사 준비 사항 논의

2026년 9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6년 9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우선 '대바자회'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에서 참가 부스 관계자들을 위해 준비한 '대바자회 키트(텀블러, 선캡, 부채, 생수, 대형 쓰레기봉투, 장바구니 등)를 소개했고, 특히 올해는 이화 140주년을 맞아 이화상점 등에서 모교 관련 다양한 판매 상품을 준비했다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함께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관한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대회에는 총 241명(유치 125명, 초등 116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세 번째 안건은 11월 30일(월) 개최되는 '이화인의 밤' 행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이화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초청 게스트를 안내했다.

또한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경숙(영문 70)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무, 이경희(약학 88) 문화부장, 최정은(커미부 89) 홍보부장, 모교의 대외협력처장과 모교 홍보실장 외에 피상순(의학 84) 의과대학 회장과 이은영(컴공 85) 인공지능대학 회장이 선정위원으로 추천되었다.

기타 사항으로 이화 140주년을 맞아 이수매니지먼트에서 9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여는 이화 기념품 팝업 이벤트 안내를 하고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캄보디아 서보경 동창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소서



성경 암송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야고보서 5:7, 8, 10, 11)

샬롬! 캄보디아의 모든 영혼이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동역자이신 교회와 교우님들에게 축써참빛교회 선교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브리서 4:12).

6월 마지막 주일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동부에서는 나리, 스레이또잇, 다리야, 나른, 쵸위, 스레이넷, 쏘카, 모니니웃, 보파, 세이하가, 중고등부에서는 쏙리, 깐냐, 다니엘, 스레이멧이 참여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가 긴장해서 요절을 잊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나른은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해당 구절을 암송해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종 결과로 아동부에서는 스레이또잇과

나른, 중고등부에서는 쏙리와 다니엘이 우승을 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 17)

이 말씀이 교회 학교 모든 아이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티어렛 전도사, 신학교 1학년 종강

티어렛 전도사가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시엠립, CPTIS) 1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두 시간 거리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이수했습니다. 학교가 멀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매일 예배와 찬양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유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0월에 시작하는 2학년 과정도 하나님 은혜로 영육이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요 기도 제목

축써참빛교회는 캄보디아 북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에는 부모들이 캄-태 국경이나 태국에서 일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캄-태 전쟁 이후로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고, 전쟁 재발의 위험으로 생업과 안전을 위해서 남쪽 수도 프놈펜이나 시하누크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떠났습니다. 이 여파로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감소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세 가정이 떠났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캄-태 전쟁은 현재 휴전 중이지만, 태국이 캄보디아 영토 일부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에서는 아직도 간간이 소규모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글·서보경(간호 89)



기·도·해·주·세·요

1. 캄-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모두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2. 축써참빛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3. 축써참빛교회 교회학교와 유치원, 방과후교실 아이들과 청·장년부 학생들, 교사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4. 전도사 티어렛, 교사 판과 짠뜨라이, 경비 트은이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5. 선교사 내외가 성령 충만하며 영육 간에 건강하여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교소식

1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기관유치형’ 선정

모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기관유치형’에 선정되며 바이오·양자 융합 분야 글로벌 연구혁신 거점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은 연구기관이 해외 우수 과학자를 직접 발굴해 국내 정착과 연구 수행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중에서도 2026년 신설된 기관유치형은 전국에서 5개 내외 기관만 선정되는 고도의 경쟁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모교는 올해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5년간 총 135억 원(연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초학제 융합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를 본격화한다. 또한 총장을 연구책임자로,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을 실무책임자로 하는 가운데 교무처, 기획처, 국제처 등 주요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사적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모교는 류인균(약학과/뇌인지과학부) 석좌교수, 전상범(전자전기공학전공/뇌인지과학부) 교수, 유진하·황인아(약학과) 교수, 박소정·최세현(화학·나노과학과) 교수, 윤석현·김동욱(물리학과) 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하는 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학, 뇌·인지과학, 화학·나노, 물리(양자)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해외 석학들을 유치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연구비 수주를 넘어, 모교가 바이오·양자 융합 분야에서 글로벌 연구혁신 허브로 도약하는 결정적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교는 ‘바이오·양자 융합 연구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초학제 융합연구와 글로벌 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이화 바이오·양자 융합연구센터(Ewha Bio-Quantum Convergence Center)(가칭)’를 구축하고,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미국 국립보건원(NIH) U01 등 글로벌 초대형 과제 공동 수주, 바이오·양자 융합 원천기술 기반 스핀오프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완전한 재정자립형 연구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나선 이향숙 총장은 “이번 성과는 이화여대가 추격형 연구를 넘어, 선도형(First Mover) 연구 리더십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전략기술인 바이오·양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과 함께 인류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연구 생태계를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최우수 'S등급' 획득

모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혁신 부문에서 2024년, 2025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하며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모교는 인센티브 65억 7,800만 원을 포함해 총 109억 7,8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성과평가에서는 ▲교육단계별 유연학사제도의 우수한 운영 ▲전공자율선택제 학생 대상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입학부터 진로·취창업까지 연계하는 '이화(EWHA) 학생 성공 지원체계' 고도화 ▲체계적인 AI 기반 교육생태계 구축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한 '이화 펀더멘탈즈+(Ewha Fundamentals+)' 지원체계 마련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혁신 거버넌스와 촘촘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모교는 2009학년도 스크랜튼대학 자유전공 도입과 2018학년도 호크마교양대학 계열별 통합선발을 시작으로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학생들이 입학 이후 충분한 탐색을 거쳐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과 신청 가능 학기와 전입 범위를 확대하고 부·복수전공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등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 변화에 앞서 첨단학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생 중심 교육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도 모교는 전공 탐색부터 진로 설계, 취·창업까지 학생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이화(EWHA) 학생 성공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지도교수, 겸임교원, 선배 멘토 등이 함께하는 맞춤형 지도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대학 적응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중도탈락률 감소와 학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모교는 2025년 전공결정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했다.

교육혁신의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모교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단계별 성과를 창출했으며, AI 기반 지능형 학사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해 '이화 펀더멘탈즈+(Ewha Fundamentals+)'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규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해 탐색·융합·적용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혁신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 차원의 교육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복수전공 및 전과 제도 개선, 기초소양 인증제 고도화, 성과관리시스템 체계화 등 교육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며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3

'서울 앵커 10 챌린지' 과제 선정, 초고령사회 통합돌봄관리 모델 구축

모교는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사업의 '서울 앵커 10 챌린지' 과제에 선정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인공지능(AI)·로봇 융합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서울 앵커 10 챌린지'는 대학이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 난제 해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구를 최장 9년간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모교는 서울시 지원금 80억 원과 대학 대응자금을 투입해 '어라이즈 이화, 프라임-서울(ARISE EWHA, PRIME-SEOUL) 챌린지'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 증가와 치매·복합질환 확산, 일상생활 기반 위험예측 및 응급연계 체계 부족 등 초고령사회의 주요 난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는 모교 의학·AI·로봇·건축 분야 교수 10명이 참여해 의과대학 중심의 '의학 축(Medical Axis)'과 공과대학 중심의 'AI-로봇 축(AI-Robot Axis)'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학 축'은 김건하 교수를 중심으로 정지향·최윤희·송태진·김진우 교수가 참여해 치매, 뇌혈관질환, 노쇠, 인지기능, 구강·영양 등 고령자의 복합 건강위험에 대한 임상 기준과 개입 체계를 마련하며, 'AI-로봇 축'은 류석창 교수를 중심으로 김순겸·임재한·황성주·오유란 교수가 참여해 멀티모달 센싱, 개인별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홈,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활용한 생활공간 위험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가정 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고령자의 외출 감소, 복약 누락, 무응답, 낙상 의심, 인지 저하 등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예방·의료·응급 대응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

인문사회 융합 교육·연구 대형 사업 연이어 수주, '인문사회 역량' 대외 입증

모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이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 대형 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기초학문부터 미래형 학제 간 융합연구 및 교육에 이르는 독보적인 학문적 수월성과 연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첨단 과학기술 및 국가 전략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해 온 모교는 이번 인문사회 분야의 교육·연구 사업 석권을 통해 기술과 인간, 사회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교육부 'HUSS' 사업 최종 선정

모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의 참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HUSS는 급격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인문사회적 통찰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 인재를 키우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모교는 연세대학교가 주관하는 '미래디자인 컨소시엄(연세대·이화여대·국립공주대·동의대·한동대)'에 참여해 미래문해력과 미래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대학 간 공유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업단(단장 박인휘 교수)은 스크랜튼학부, 국제학부, 뇌인지과학부, 기독교학과, 여성학과 교수진이 참여하며, 향후 3년간 10억 8,000만 원

을 지원받는다.

모교는 학생들에게 교과·비교과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개 대학 공동 개발 교과목 및 프로젝트 기반 캡스톤디자인 중심의 마이크로전공을 신설하고, HUSS 여름캠프, 해커톤 경진대회, 해외탐방 등을 운영해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 중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형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2026 NRF 인문사회 집단연구과제 4개 연구팀 선정

이와 함께 모교 4개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NRF)의 '2026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집단연구과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화사학연구소(연구책임 정혜중 교수)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년간 약 19억 9,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학과, 식품영양학, 의학과, 한의학, 경제학 등 다학제 융합연구를 통해 자연 상태의 '식료'가 근대 국가 위생 통제를 거쳐 규격화된 '식품' 및 '음식'으로 변모하는 역사를 추적하고, 글로벌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한국여성연구원(원장 이은아 교수)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년간 '민주주의의 위기와 젠더'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올해 사업 신청 과제 중 '젠더'를 핵심 주제로 다룬 연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젠더·세대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성평등과 공존에 기반한 '젠더 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한다.

사회복지연구소(소장 전종설 교수)는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형)'에 선정되어 3년간 19억 9,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공학융합연구원과 함께 기후재난 시대 1인가구 청년의 에너지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AI·기후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융합한 'AI 기반 탐지·경보·개입' 선제적 사회안전망 모델을 개발한다.

김수지 교수 연구팀(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전공)은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지원형)'에 선정되어 3년간 초고령사회 노년기 청각수용과 사회적 역할의 관계를 입증한다. 간호학·통계학·언어병리학 등과의 융합연구 및 자체 개발 앱 'AMP-Ling6'를 활용해 노인을 능동적 건강 주체로 재조명하는 디지털 모형을 구축한다.

모교는 이번 HUSS 사업 및 NRF 집단연구과제 선정을 발판 삼아,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 중심의 초학제적 교육·연구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5
이화 140주년 기념 국내외 동창 및 이화가족 초청 기념행사 잇달아 개최

모교가 이화 140주년을 맞아 국내외 동창들과 3·4대에 걸쳐 이어진 동창 가족들을 초청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이화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다졌다.

대외협력처(처장 최윤정)는 지난 4월부터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행사, 해외 동창 대상 '글로벌 홈커밍', 그리고 세대 간 유대를 조명한 '이화가족 찾기 및 초청 오찬'을 차례로 개최하며 이화 140년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전 세계 이화인과 공유했다.

4월 23일(목) 총동창회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의 봄,



'이화 140주년 기념 이화가족 초청 오찬' 행사 단체사진

140년의 시간을 걷다'를 주제로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학생 홍보대사 '캠퍼스 리더'의 안내로 본관, 대강당, 중강당, ECC 등을 둘러보고, 이화역사관 도슨트 전시와 아령당 차담회를 통해 모교의 발전상과 창립 정신을 되새겼다.

5월에는 세계 각지의 동창들이 모교를 찾는 '이화 글로벌 홈커밍'이 이어졌다. 5월 12일(화) 해외 지회 동창 60여 명이 대강당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를 함께 관람한 데 이어, 창립 주간에는 '이화 140, 세계를 품은 이화, 하나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북미 동창 등 40여 명이 모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대서울병원 및 보구녀관, 박물관 특별전 '眞(진)·善(선)·美(미), 이화 140년: 기억에서 미래로', 조형예술대학 '메이데이'전, 총동창회 합창 페스티벌 등을 두루 참관했다. 특히 5월 29일(금) '동창의 날' 행사에서는 미국 남가주 지회 동창들이 축하 찬조공연을 선보이는 등 오랜 세월 타국에서도 이어져 온 모교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 주었다.

지난 4월 15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한 달간 '이화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해 3대 이상 직계 가족 또는 4촌 이내 다수의 동창으로 구성된 이화가족을 발굴했다. 올해 이화가족 찾기 행사에는 총 88가족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대를 이어 이화' 부문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3대 이상 직계 가족을 이룬 40가족이, '우리집은 이화' 부문에서는 4촌 이내 친족 가운데 가장 많은 이화 동창이 함께 하는 9가족이 발굴됐다.

7월 7일(화)에는 이 가운데 35가족을 비롯해 이향숙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주요 보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 140주년 기념 이화가족 초청 오찬' 행사가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박윤선(영문 92) 동창 가족을 포함해 3·4대에 걸쳐 이화의 전통을 이어온 27가족에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이화가족 18명으로 구성된 최유은(영문 89) 동창 가족, 전영희(외교 69) 동창 가족을 포함해 8가족이 감사패를 받았다.

4대 가족 대표로 소감을 전한 2대 윤숙병(기악 66) 동창은 "선교사분들 덕분에 기독교를 접하시게 된 증조할머님이 어머니를 호수돈여고와 이화여전으로 이끌어 주셨고, 딸과 손녀까지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다 인원 가족 대표로 나선 최유은 동창은 "외조모를 시작으로 어머니와 시어머니, 네 명의 이모, 다섯 명의 사촌, 한 명의 자매와 네 명의 시누이까지 집안 곳곳이 이화 동창으로 이어져 있다"며 "시어머니 88세 생신을 기념해 가족이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동창들의 축하 공연과 가족 이야기 나눔,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이화 1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일련의 행사는 국내외 동창과 여러 세대의 이화가족이 함께 모교의 역사와 정신을 공유하며 '이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모교는 앞으로도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이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대학(원) 소식

조형예술대학

회장__이승은(동양 89)

녹미합창단 뒤풀이 행사

조형예술대학 녹미합창단은 5월 28일(목) 대학교회에서 펼쳐졌던 합창페스티벌에서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 서는 세 팀 중 한 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보컬 트레이너와 안무가의 특급 지도를 받은 차명임(서양 82) 단장 이하 26명의 단원들은 울고 웃던 연습 기간과 5월의 찬란했던 합창제를 떠올리며 지난 6월 22일(월) 파주출판도시 파비욘드 갤러리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녹미합창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동창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녹미합창단 뒤풀이 행사를 가진 조형대학 동창들



의과대학

회장__피상순(의학 84)

Good Doctor에서 Green Doctor로

6월 3일(수) 25대 집행부 이예누(이화 예술문화누림) 모임이 있었다. 동창들은 NOL서경스퀘어스콘 1관에 모여 〈불란서 금고〉를 단체 관람하고 느낌을 나누었다.

6월 21일(일) 안산제일CC 골프팀 10팀과 5명의 동창 도우미가 모여 제15차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골프대회 후 식사를 하며 시상 및 선물 나눔 순서를 갖고, 동창들 간에 대화를 나누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7월 4일(토) 제15차 동기회장·지회장 회의가 모교 ECC 컨퍼런스홀에서 열려 7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동창들은 동기회, 지회 소식을 함께 나누며 한층 가까워지고 동창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짐을 느꼈다. 또한 하은희(87) 교수의 'Good Doctor에서 Green Doctor로 : 의사의 새로운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환자를 돌보는 Good Doctor에서 나아가 지구의 건강까지 함께 생각하는 Green Doctor가 되자고 다짐하였다.

7월 9일(목) '이화배꽃나눔실천단'이 충북 괴산군 동부3리 노인회관에서 실시한 봉사에 피상순 회장, 양훈진(95) 총무가 합류하여 주민들을 위한 정신과 면담 및 산부인과 초음파 등을 봉사하였다.

7월 28일(화) 달개비 컨퍼런스홀에서 이화의료원장인 유경하(84) 동창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였다. 배움과 도전의 시작부터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의 리더십, 이화의료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치



동기회장·지회장 회의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열한 여정, 그리고 최초의 여성 대한병원협회장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까지. 성실하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에서 깊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자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남편에게는 아름다운 여자, 자식에게는 철학적인 여자, 가정에서는 과학적인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시형 박사의 글이 힘이 되었다며,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책을 사 주기도 하고 멘토를 하였다고 한다. 유경하 동창이 들려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궤적들에, 모였던 동창들이 모두 감동을 받고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8월 13일(목)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동창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지회' 창립식이 있었다. 서울대병원 지회는 31번째 지회이자 2번째 대학병원 지회로 탄생하게 되었다. 지회 창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서울대 종양내과 교수 임석아(91) 동창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간호대학

회장__현석경(간호 87)

신입 회원 환영회 개최

8월 6일(목),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동창회 소개 및 신입 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동창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현석경 간호대 동창회장, 김숙현(90)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구종모(91)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김건희(99) 간호대학 부학장, 김민정(11) 간호대학 조교수를 비롯해 졸업 예정 학생 96명 등 총 101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졸업을 앞둔 예비 동창들을 격려하고, 동창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간호대학 동창회 신입 회원 환영회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약학대학

회장__허은경(제약 87)

졸업 50주년을 맞은 약학 27회·제약 6회 동창들

약학 27회(1976년 졸업) 동창들은 미국, 캐나다에서 방문한 동기들까지 함께하여 5월 31일(일) 양재역에서 전세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싣고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

병산서원에 도착해서 서원과 안동 하회마을, 류성룡 생가를 방문하고 선비 순례길과 밤 풍경이 아름다운 월영교를 산책하며 여행 첫날을 즐겁게 보냈다. 둘째날은 영덕으로 넘어가 바다 풍경이 아름



동창의 날 행사에서 축하 무대를 공연한 약학대학 합창단 동창들

다운 카페와 해맞이 공원, 삼사 해상 공원을 둘러본 후 저녁으로 푸짐한 박달계를 맛보고 바다 전망이 멋진 호텔에서 회포를 풀었다. 셋째날은 이별을 아쉬워하는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불국사, 국립박물관을 관람하고 대릉원을 산책하였다. 50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친구들, 멀리 고국에서 찾아 준 친구들과 함께 한 꽃길 여행은 감사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제약 6회(1976년 졸업) 동창들은 동기 대표와 몇 명의 동기들이 함께 졸업 50년 만에 주소록 확인을 하며 졸업 50주년을 준비하였다. 43명의 동기 행사가 약대 건축기금과 주홍 장학금 등을 모으는데 기꺼이 협조해 주었다. 합창 준비를 하고 동창의 날에 대강당 무대에 섰던 순간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5월 30일(토) 24명의 친구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도와 남해 여행을 하며 지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졸업 50주년이 동기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_박경임(식영 73)

김숙희 교수 구순연

7월 30일(목) 연희동 진보 중식당에서 김숙희(가정 60) 교수 구순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김숙희 교수 구순연은 이가영회(이대 가정대 식영과 대학원 졸업생의 모임) 이경애(식영 82) 회장이 주축이 되어 식품영양학과 제자들과 아령회 임원, 김혜숙(영문 76) 전 이화여대 총장, 정창용 이화여고 이사장, 조은영 YWCA 회장, 박성순 신부님 등 내빈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김숙희 교수 구순연은 김수연(식영 90) 식품영양학과 동창회장의 사회로, 박경임 아령회 회장의 인사말,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 정창용 이화여고 이사장, 조은영 YWCA 회장의 축사와 제자 김현숙(가정 67)·하보영(식영 69)·김양하(식영 83) 동창의 축사, 이자숙(식영 73) 동창의 축시 낭독, 우미형(의직 77) 회장 외 아령합창단의 축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숙희 교수의 감사 인사와 헌화, 선물 증정에 이어 생신 축하 노래에 생일 초 끄기와 케이크 커팅을 하였다. 박성순 신부님의 기도에 이어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김숙희 교수 구순연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 __ 지선영(84)

임원회의 열고 동창회 행사 논의

6월 12일(금) 올리브에비뉴에서 국어국문과 임원회의가 열려, 9월에 있을 총동창회 대바자회, 10월의 가을 나들이 준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내년 9월의 국문과 80주년 행사를 앞두고 국어국문과 동창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8월 19일(목) 모교 본관에서 '국문과 80주년 기념 21기 강정혜 장학금' 기금 전달식이 뜻깊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기부자인 강정혜(70) 동창을 비롯하여 이향숙 모교 총장, 인문대학 임석원 부학장, 김승우 학과장, 대외협력처 관계자, 지선영 회장과 안성희(88) 사무국장, 황세레나(90) 서기 등 국어국문과 동창회 임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강정혜 동창은 이날 이화아너스 클럽 회원으로도 위촉되었다.

또한 유보경(86) 동창도 1억 원의 기부를 약정하여 곧 기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 국어국문과 8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부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영어영문학과

회장 __ 강명옥(82)

영학회 34기 임원 워크숍

영어영문과 동창회인 영학회 34기 임원들은 6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코리아나호텔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졌다.

중식당 대상해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임원들은 향후 4기 전체적인 영학회 행사와 부서별 활동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9월 총동창회 대바자회에 출품할 물건들과 수급 방법, 인력 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사 경비에 대한 상한선을 조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온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임원들



정했다.

이튿날 조식 뷔페 자리에는 전날 참석하지 못한 임원이 참석하여 영학회 행사 계획을 공유하면서 친목을 다졌다.

불어불문학과

회장__이화원(81)

격월로 간사회 정례 모임 가져

불어불문학과 동창회 아미회는 각 기별 2명 내외로 구성되는 간사회 정례 모임을 짝수 달 세 번째 수요일에 갖고 있다. 2026년-2027년에는 총 63명의 간사가 활동할 예정이다.

6월 17일(수)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총 32인의 간사가 참여해 6월 정례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홍현정(87) 동창이 '내 인생의 여행'을 주제로 인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8월 19일(수)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총 32인의 참여로 간사회 정례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윤수미(85) 동창이 '내 인생의 예술'을 주제로 멋진 보태니컬 아트를 소개해 주었다. 한편 2027년 불어불문학과 창설 70주년을 기리기 위한 준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가 있었다.

간사회 정례 모임에 참석한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__박지나(90)

선후배가 함께한 '남산 역사탐방'

6월 16일(화) 독어독문학과 동창 24명이 남산 역사탐방에 나섰다. 안중근 의사 동상 앞에서 출발해 남산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조선통감 관저 터와 경성신사 터를 지나 조선신궁 터로 이어지는 이른바 '국치의 길'까지 함께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가이드는 동화약품 윤도준 전 회장이 맡았다. 윤 회장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미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2017년부터 남산 역사탐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그 기록을 담은 『푸른 눈썹 같은 봉우리, 아름다운 남산』을 펴내기도 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지만 다행히 바람이 불어 탐방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특히 안윤정(69) 동창이 앞장서 끝까지 완주하며 후배들에게 힘을 보탰다.

남산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작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었다. 그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었다.

탐방을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이 명동으로 모두 함께 자리를 옮겨 삼계탕으로 원기를 회복했다. 뒤풀이는 안윤정 동창이 마련했으며, 가이드를 맡았던 윤도준 전 회장 내외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선후배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3시간에 걸친 남산 탐방의 여운을 나누는 뜻



남산 역사탐방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깊은 시간을 보냈다.

6월 19일(금) 오전 11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라이즈 호텔 내 '모노플렉스 앳 라이즈'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강기명(96) 동창이 몸담고 있는 영화사에서 배급하는 영화 〈사람과 고기〉를 독어독문학과 선배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며 직접 초대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사람과 고기〉는 박근형, 장 용, 예수정 세 배우가 주연을 맡아 인생과 나이 듦을 잔잔하게 돌아보게 하는 작품으로, 유쾌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을 울리는 여운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30명 규모의 대관으로 진행됐으며, 영화 관람을 마친 뒤에는 영화관 바로 옆 뷔페식당 '차르'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후배가 선배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랜만에 독어독문학과 선후배가 한데 모여 영화도 보고 서로의 정도 나누는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사학과

회장__백옥경(85)

세대를 잇는 만남, 제44회 정기총회

6월 25일(목) 모교 ECC 컨퍼런스홀에서 제44회 사학과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4회 졸업생인 강경숙(62) 동창부터 68회 졸업생인 배예은(26) 동창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108명의 동창이 참석해 반가움을 나누었다. 총회는 한혜련(75) 고문의 기도로 시작되어 최유리(84) 회장의 인사, 최해별(01) 사학과 학과장의 인사로 이어졌다. 이어 새롭게 동창회 구성원이 된 신입 동창들을 소개하고,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선우(08)·함예재(09)·백다해(12) 동창에게 축하의 뜻을 담은 기념 문진을 증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노고로 동창회를 이끌어 온 최유리 회장의 뒤를 이어 신임 동창회장으로 취임한 백옥경 동창이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동창회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학과 김일년 교수의 특별강연도 마련되었다. 김일년 교수는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행복한 우리 집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근현대 가정의 풍경이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여기에 어떤 역사적 함의가 들어가 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내 동창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가 제창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는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 도서, 화장품 등 동창들이 정성껏 마련한 다양한 찬조 물품이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학과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당첨자가 발표될 때마다 행사장에는 즐거운 함성이 이어졌다. 사학과 동창회 제44회 정기총회는 6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사학과의 인연을 확인하고, 이화 사학의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회학과

회장__엄명숙(83)

세대를 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사회학도의 만남

7월 16일(목), 사회학과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 간의 깊은 교감과 연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26 영원한 이화인'으로 선정된 현정은(76)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은미(81) 이사장, 이동원 원로교수, 최샛별(93) 사회학과 학과장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1960년대 졸업생부터 2000년대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선후배 동창들이 대거 참석하여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었다.

현정은 동창의 감사인사와 김정선(83) 교수의 은퇴 소감, 오숙영(77) 전 동창회장의 재치 있는 선배 소개와 엄명숙 현 동창회장의 따뜻한 후배 소개 등 화합의 깊이를 돈독하게 느끼게 해준 이번 모임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 속에서 사회학과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발전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사회학과 동창들



물리학과

회장__정세현(92)

신임 회장과 새 임원진 소개

5월 19일(화) 모교 ECC 닥터로빈에서 물리학과 동창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졸업 3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동창들도 함께 모여서 축하하였고, 7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16기 동창들이 행사 식사비를 지원하였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물리학과 재학생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선후배 동창과 재학생들의 화합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8월 13일(목) 대학로 몽쁘띠쁠라에서 물리학과 동창회 정기 기 간사 회의가 있었다. 정세현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어 취임 인사를 했고 함께 선출된 새로운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기 간사 회의에서는 기별 간사회 기금 현황 보고와 하반기

정기총회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주요 행사가 논의되었다.

화학과

회장__조혜성(87)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 다녀와

화학과 22기 동창들(1976년 졸업)은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29일(금) 동창의 날, 모교에서 재상봉의 시간을 보낸 데 이어, 6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경북 지역으로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에는 동창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에서 귀국한 '영원한 이화인' 박종희(76) 동창도 동행하였다.

동창들은 수십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어릴 적 모습이 남겨진 얼굴을 마주하며 어제 같은 학창 시절 이야기로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경주의 솔거 미술관을 시작으로, 동궁과 월지, 안동의 병산서원, 하회마을, 월영교 등을 들러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안동소주 제조에 관한 무형문화재 제12호 기능 보유자인 배경화(74) 동창의 안동소주박물관을 방문하여 따스하고 정겨운 선배와의 만남도 가졌다.

안동소주박물관을 관람한 화학과 졸업 50주년 동창들



졸업 후 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명랑하고 활달한 동창들의 모습에서 새롭게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의미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만남을 이어가자고 다짐하며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동양화과

회장__황정아(93)

다양한 단체전 소식

6월에는 동양화과 동창들의 다양한 단체전이 열렸다.

6월 3일(수)부터 8일(월)까지 종로구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미술관 기획초대전으로 동창 단체전 '시각의 생성(The Production of Vision)'이 개최되었다. 강성은(06)·김미영(08)·김지평(김지혜, 99)·김현경(97)·서은애(93)·성인제(00)·윤정원(01)·이은지(13)·이주연(90)·정유미(05)·조진희(대학원 10)(가나다순) 동창이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동창들은 이승철 동덕아트갤러리 관장의 전시 서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과 사유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경험을 선보이며 서로 다른 시선의 공존을 통해 인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또한 시각을 단순한 재현이 아닌 감각과 인식의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며,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각기 다른 이미지와 해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6월 2일(화)부터 10일(수)까지 미국 뉴욕 첼시에 위치한 AP Gallery에서 Koreanection의 주최로 '7 Voices from Seoul' 주제로 한 동창 단체전을 개최했다. 참여 작가는 강수희(19)·김민지(21)·박



'7 Voices from Seoul' 단체전이 열린 전시장 풍경

지영(20)·배윤재(16)·설진화(대학원 15)·양지오(23)·조소윤(대학원 재학중) 동창이다. 이번 전시는 서울 기반 한국 작가 7인의 작품을 통해 전통 동양화의 감각과 동시대적 시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서울의 목소리'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서양화과

회장__안혜리(91)

서양화과 1회 졸업생 '한진수 명예교수 상수전' 개최

서양화과 동창회는 6월 9일(화)부터 20일(토)까지 모교 이화아트센터에서 한진수(49) 명예교수의 상수(上壽, 100세)를 기념하는 '국내 최초 미대생 석정(石亭) 한진수 교수 상수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고전에는 한진수 명예교수의 대표작과 드로잉과 사진, 친필 메모 등 100여 점이 출품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생애사를 넘어서 한국 여성미술 80년의 흐름과 미술교육의 귀중한 자료를 보여준다는 데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진수 명예교수는 한국 현대미술의 1세대 작가로 광복 후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대학'인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학부 서양화과 1회 졸업생이며, 예림원 미술학부 졸업생들로 구성된 '최초의 여성미술가 단체'인 녹미회 창립에 참여한 분이다. 한진수 명예교수는 1968년에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1992년 퇴임하기까지 많은 후학을 양성하신 교육자이기도 하다.

이번 상수전은 서양화전공이 주관하고 서양화과 동창회가 후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전시 기획의 큰 그림은 한진수 명예교수의 딸 천동옥(86) '아틀리에 하원 석정' 관장과 강애란(83) 명예교수가 맡았고, 조은정(85) 미술평론가, 박윤조(97) 미술사학자, 김예진(04) 아트플렉서블 대표가 세부 기획과 자료 준비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박수경(86)·백다임(86) 동창 등이 전시 도록 포장을, 정선주(94) 동창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이 작품 설치를 함께 도왔다.

6월 9일(화) 오후 4시에 열린 개막식 행사는 안혜리 회장의 개회사와 기도로 시작하여 내외빈 소개 및 문경원(93) 학장의 환영사, 한진수 교수 약력 소개, 천동옥 관장의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은정 미술평론가가 전시 작품을 소개하고, 김예진 대표가 아카이브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리셉션 다과는 나인하(91)·박형주

'한진수 교수 상수전' 개막식에 참석한 서양화과 동창들



(91)·조상은(93)·김수현(08) 동창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였고, 최지인(99) 동창을 통해 《TV조선》과 《동아일보》에 전시 홍보 기사가 나갔다. 전시장 지킴이는 김지은(91)·이은주(91)·손인선(91)·장수임(92)·정혜나(94) 동창 등을 비롯해 모든 임원진이 참여하였다.

개막식에는 많은 관객이 참여해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 서양화전공의 김형대·류희영·장화진 명예교수와 이광호·이찬웅·이창원 현직 교수, 동양화전공의 원문자(동양 66)·오숙환(동양 75)·조정현(생미 63) 명예교수, 녹미회와 서양화과 동창들이 참석하였으며, 내빈으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 권상능 조선화랑 회장과 같은 미술계 인사들과 한묵, 이봉상, 문우식(화가), 김윤중(서예가), 임응식(사진가)의 가족 등이 참석하여 성대한 개막 행사가 되었다.

조소과

회장__김 연(91)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 통해 동창회 행사 논의

2026년 제2차 조소과 운영위원회가 8월 31일(월) 스페이스 다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 ESAarts Awards–국제조각페스타 지원 작가 심사를 비롯해 학부 및 대학원생 기획전시 지원사업, 회비 운영 방안 등 폭넓은 안건이 논의되었다. ESAarts Awards에는 김순임(02)·이은선(02)·우유리(김유리, 13)·도정윤(24) 동창 총 4인이 선정되었다. 더불어 가을 야유회와 이정자(66) 고문의 아티스트 톡 등 동창이 함께할 향후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 이종희(71), 황지선(74), 임영란(78), 김종희(79), 오주연(90), 김연(91), 이윤정(91), 이은이(92), 김양선(94), 이지은(97), 윤수진(01), 김순임(02), 최요중(05))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같은 날 오후, 동일한 장소에서 2026년 제2차 조소과 동창회 임원회의가 열렸다. 임원회의에서는 앞서 논의된 가을 야유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고, 전반적인 동창회 행사 기획 및 회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동창들이 원활히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회원 간의 유대와 친목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참석자: 오주연, 김연, 이윤정, 이은이, 김양선, 이지은, 윤수진, 김순임, 최요중)

섬유예술과

회장__이상영(94)

사라져 가는 한국 현대 자수사를 한 자리에 모아

섬유예술과 동창들로 구성된 현수회가 8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모교 이화아트센터에서 '현대 자수의 조형적 표현'이라는 주제로 '제17회 현수회전'을 개최하였다. 1945년 예림원 내 자



전시장에서 한자리에 모인 현수회 회원들

수 전공에서 시작된 한국 현대 자수는 그 기반 형성과 조형적 가능성이 확장된 1960~80년대 작품들이 작가의 타계 등으로 작품이 소실되는 과정을 현재 겪고 있다. 이 전시는 한국 현대 자수사에 대한 기록과 자료 소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작품부터 2026년의 작품까지 한국 현대 자수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보여 주고자 기획하였다.

전시에는 고(故) 김인숙(49)·강승희(74)·김복희(72)·김혜순(66)·박연실(77)·박정례(79)·박향숙(87)·배성은(09)·신지혜(02)·안은선(07)·고(故) 양영애(61)·오복환(66)·윤귀영(71)·윤미경(85)·윤영자(67)·윤혜정(87)·이상미(88)·이상복(67)·이상영(94)·이윤경(05)·이은화(79)·이효범(61)·임은경(96)·임정옥(70)·장영란(77)·전영선(88)·정진경(96)·조근미(79)·주선경(96)·진윤미(08)·최명하(86)·탁지숙(64)·한수영(72) 동창(가나다순)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 33인이 참여하였다.

전통 자수의 섬세한 기술과 현대 섬유예술의 실험적인 조형성이 만나는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자수가 지나온 궤적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자수가 동시대 예술로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리가 되었다.

특수교육과

회장__최은주(89)

모교 방문의 날 행사

특수교육과 동창회는 6월 25일(목) 18시 모교 진선미관 식당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은퇴한 교수님들과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 그리고 72학번부터 21학번에 이르기까지 총 41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여러 교수님과 졸업생들이 '이화의 특교인'이라는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 기도로 시작하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전해드리고, 교수님들의 인사 말씀과 학번별 소개 순서가 이어지며 함께 친목을 나누었다. 참석한 동창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속감과 화합을 다지고, 특교인으로서의 긍지를 한 층 높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7월 29일(화), 파스텔시티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한 회장단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역대 특수교육과 동창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총동창회 대바자회, 총회, 젊은 동창들의 참여 독려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 박애영(75), 원종례(77), 한은주(79), 임소인(80), 명경미(82), 김은경(87), 최은주(89))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동창들



지회소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김성은(과교 88)

이화의 이름으로 함께한 남가주의 아름다운 여름

남가주 지회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동창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뜻깊은 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아름다운 여름의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우선 6월 22일(월) 제19회 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총장배 골프대회는, 동창과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하는 친선의 자리인 동시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남가주 지회의 대표적인 연례

골프대회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행사이다. 참가자들은 푸른 필드 위에서 즐거운 라운딩을 함께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도 많은 동창과 후원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태 주어, 나눔과 섬김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이화인의 끈끈한 유대와 나눔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7월 23일(목)에는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히사이시 조의 영화 음악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할리우드 볼에 함께했다. 아름다운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합창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영화 음악은 동창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 전부터 모여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정을 나눈 동창들은 공연의 감동까지 함께하면서,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도 '이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이것이 동창회의 소중한 의미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남가주 지회는 앞으로도 장학사업과 봉사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를 잇고 동창 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화의 이름으로 만나고, 함께 나누며,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간 남가주 지회의 2026년 여름이었다.

뉴욕 지회

회장 __ 류은주(약학 91)

초복 맞이 몸보신 데이

뉴욕 지회는 뜨거운 여름 시즌을 사랑과 나눔의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6월, 미국 최초의 골프 클럽



바비큐 및 바자회 행사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하우스에서 '이화가족 바비큐 및 바자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140주년을 맞이한 모교의 역사와 뉴욕 지회의 역사 아카이빙 프로젝트 소개, 뉴욕에 자리한 이화국제재단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 온 뉴욕 지회의 지역 사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동창들이 기증한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바자 물품판매 수익금으로, 지난 7월 초복을 맞아 50여 명의 708090 선배 동창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하고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Blessing Ewha 몸보신 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90대의 동창은 "다양한 이화 동창회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고 싶어서라도 더욱 건강을 잘 관리하겠다. 선배들을 대접하는 후배들의 예쁜 마음에 감동하였다"고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8월에는 405060 이화 동창 30여 명이 참석한 'Movie & Mingl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가정과 직장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장년 이화인들이 모처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알찬 시간을 즐겼다. 아울러 8월 말에 '2030 Blooming Ewha Connect'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30 동창들과 동아리 리더들 30여 명이 함께하여 커리어와 미국 생활에서의 전문성 개발과 헌신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구 지회

회장 __ 권애실(불문 82)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도시락 전달

6월 29일(월) 대구 지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먼저 대구중구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에 50만 원 도시락 준비금을 기탁하여 대구사랑봉사단 봉사자들이 직접 정성으로 조리한 반찬으로 동창들이 도시락 30인 분을 함께 만들었다. 회장단은 완성된 건강 도시락을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에 후원금 100만 원과 함께 전달하였다.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체계에서 보호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18세 이상 청년을 뜻한다. 정부에서 촘촘한 복지체계로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 절실해 보였다.

정성으로 만든 도시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한 대구 지회



게 우리의 응원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작으나마 대구 지회 동창회에서 보인 관심이 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총 150만 원의 봉사금은 대구 지회 동창들이 사랑으로 내준 회비와 찬조금임에 깊은 감사드린다.

멜버른 지회

회장 _ 박 령(중문 03)

성공리에 치러진 아나바다 장터

지난 5월 중순 김명희(가정 66) 동창의 인도로 이루어진 산행 소모임에 이어, 두 번째 정기 모임이 8월 1일(토) 박 령 회장 집에서 열렸다. 으슬으슬 춥고 비가 잦은 겨울 날씨와는 달리, 이날은 햇살 가득한 화창한 날씨 속에 15명의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동창들이 한 접시씩 준비해 온 음식이 한데 모여 화려한 잔칫상이 완성되었고, 정성 가득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특히 최고 연장자인 고경자(동양 63) 동창이 귀한 걸음을 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고경자 동창은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소중한 기부금도 전달하였다. 또한 멜버른 이민 역사와 삶의 지혜를 나누고, 모교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 주어 모든 동창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학부 졸업 후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멜버른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기민정(사복 24) 동창도 함께해 더욱 반가운 자리가 되었다.

식사 후에는 동창들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예정대로 지회 기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가 열렸다. 이번 장터에는 동창들이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비롯해 김향림(영교 75) 동창과 윤숙경(간호 76) 동창이 직접 그린 작품들이 기부되었다. 특히 김향림 동창의 작품을 두고 두 동창 간의 경쟁으로 즉석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열띤 분위기와 재미를 더했다. 동창들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재능 기부가 더해진 이번 아나바다 장터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여기에 양수경(경영 91) 동창의 지회에 대한 감사의 기부까지 더해져, 앞으로 멜버른 지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소중한 운영 기금이 마련되었다.

다음 소모임은 10월 초 정은재(장미 99) 동창의 진행으로 보타닉 가든에서 피크닉을 가질 예정이며, 12월 초에는 올해의 마지막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창들의 따뜻한 만남과 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멜버른 지회 동창들

미네소타 지회

회장 _ 이명순(기악 70)

이화봉사단 후배들과의 만남

6월 13일(토) 미네소타 지회는 김정은(체육 90) 동창 집에서 12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새 회장단을 선출했다. 새 회장에는 이명순 동창이 선출되었으며, 지난 6년간 동창회를 위해 수고하며 모임 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준 김정은 동창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정은 동창의 집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미네소타 지회 동창들

이어 회계 보고와 함께 향후 동창회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미네소타 한인회에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9월 25일(금) 열리는 한인복지센터 창립기념일 행사에는 동창회 이름으로 테이블을 하나 마련해 참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9월 12일(토) Mall of America에서 열리는 Korean Culture Festival에는 일부 동창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동창들의 소식도 함께 나누었다. 고(故) 황성숙(국문 68) 동창을 기리는 기리는 '황성숙·김권식기념식수' 소식과 더불어, 김권식 이화국제재단 이사의 발전기금 기부로 '이화가족경영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한편 미네소타를 떠나게 된 안수희(사복 95) 동창과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청빈(통계 17) 동창의 결혼 소식에는 모두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7월 3일(금)에는 캠프조선(Camp Choson)에서 해외교육봉사 일정을 마친 이화봉사단과 만났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봉사를 펼친 후배들의 캠프 활동 이야기를 들으며 젊음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미네소타 동창들은 다음 모임에서 다시 반갑게 만날 것을 기약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밴쿠버 지회

회장 __ 이은경(기독 89)

정겨운 여름, 이화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하루

밴쿠버 지회는 8월 1일(토) 흄공원에서 동창과 가족 50여 명이 함께하는 여름 소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동창들이 정성껏 준비한 '여름 집밥'이었다. 직접 담근 배추 겉절이를 비롯해 신선한 쌈 채소와 쌈장, 특제 간장으로 맛을 낸 소불고기, 부추 해물전, 멸치배춧국, 오색 잡채, 미역초무침, 시원한 수박까지 푸짐한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이화가족들은 함께 식사와 담소를 나누고, '명찰 붙이기 게임'과 '노래와 춤'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손주와 자녀들도 함께해 한국의 전통 집밥을 맛보고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 모두가 '이화'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팔순이 넘은 동창 부부를 비롯해 이민 3세대 가족이 함께한 '이화인 가족사진'은 이날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올여름 소풍은 맛있는 음식과 정겨운 대화,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 속에서 '함께여서 더욱 행복한 이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가족과 함께 여름 소풍에 참석한 밴쿠버 지회 동창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박명정(섬예 80)

모교 창업팀과 실리콘밸리 선배들의 네트워킹 자리 마련

북가주 지회는 지난 7월 9일(목) 실리콘밸리를 방문 중인 모교 학생 창업팀과 현지 동창들을 연결하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북가주를 찾은 학생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선발된 학생들로, UC 버클리 현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미국에 머물렀다.

참가팀은 리모델링 업체의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3D CNN 기반 가실측 솔루션을 개발하는 '리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디자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튜디오엑시스', 중소기업의 전시회 부스 디자인 진입장벽을 낮추는 간편 디자인 솔루션 '이지부스', 그리고 커피박 업사이클링 활성탄과 단백질 캡슐을 결합한 기능성 샤워 필터를 개발하는 '그라운드사이클' 등으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 개발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과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현지 시장과 기술 동향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선배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구글, 서비스나우 등 실리콘밸리의 유수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거나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창들은 자신의 경험과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엘림투자회사(ELIM Inv Co.)를 운영하는 서인원(수학 89) 동창은 IT업계, 투자, 언론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었다. 케이빈(KBean)의 공동 창업자이자 COO인 남기령(기독 93) 동창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미리 준비한 영상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시장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케이빈은 스마트 관광 인프라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IT기술로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모교 창업팀과 실리콘밸리 선배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북가주 지회

이번 만남은 모교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후배들과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참가 동창들은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모교와 해외 동창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북가주 지회는 앞으로도 모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를 전하고 동창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애틀 지회

회장 __ 김희정(영문 83)

첫 '이화 산행' 다녀와

8월 5일(수), 시애틀 지회 소속 다섯 개 동아리 중 하나인 등산/사진반(반장 김주숙(제약 78))이 주축이 되어 Naches Peak Loop Trail로 전체 동창 대상 '이화 산행'을 나갔다. 90세 주영숙(영문 60)

대선배를 비롯한 총 25명의 참가자들은 에메랄드 빛 호수가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하며, 멋진 인생 샷을 여러 장씩 남겼고, 김밥과 간식, 완주 기념품이 선사하는 즐거움도 만끽했다. 특히 베테랑 산악인 이재경(수교 80) 이사장 부부가 사전답사 등 꼼꼼히 수고해 준 덕에 첫 이화 산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으며, 참가자 모두가 서로서로 배려하고 챙김 속에 이화 정신이 한결 돋보인 산행이었다.

8월 22일(토)에는 70여 명의 이화가족이 참가한 '이화 하계 야유회'가 Steel Lake Park에서 성대히 열렸다. 참가 동창들은 푸짐한 바비큐 만찬을 즐기며 밀렸던 회포를 풀기 바빴고, 식사 후에는 학창시절 해봤던 '그때 그 시절' 게임으로 시종일관 웃음을 터뜨렸으며, 상품은 물론 행복한 추억도 함께 나눠 가졌다. 한여름의 끝자락에서 선후배가 세대를 넘어 한데 어우러지는 정겨운 야유회는 영원한 이화인으로서의 끈끈한 우정과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화 하계 야유회'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시카고 지회

회장 __ 최지숙(무용 83)

선후배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풍

6월 6일(토) 아름다운 Lake Geneva에서 즐거운 소풍을 가졌다. 이른 아침 Hawthorn Mall Macy 앞에 모여 카풀로 이동한 동창들은 푸른 호수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선후배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운전을 맡아 봉사해 준 동창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준 모든 동창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준 동창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소풍이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6월 11일(목) Chicago Botanic Garden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를 가졌다. 무료 입장일을 맞아 Garden View Cafe 앞에서 모인 동창들은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푸른 정원을 함께 걸으며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했다. 자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웃음과 대화를 함께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산책을 마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선후배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동창애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갔다. 참석해 준 모든 동창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다양한 모임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7월 29일(수) 오구미(의학 78) 이사장과 함께 '탕' 한식당에서 대선배님 모시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1960년부터 1963년 졸업하신 선배들을 초청하였으며, 초청 대상 17명 가운데 10명의 선배가 참석하였다. 선배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며 학창 시절의 추억과 근황을 이야기하고,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준 선배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선배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이



Lake Geneva로 소풍을 다녀온 시카고 지회 동창들

되었다.

시카고 지회는 앞으로도 선배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1964년부터 1967년 졸업한 선배님들을 모시고 다시 뜻깊은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워싱턴 D.C. 지회

회장 _ 김 원(영문 83)

장학사업과 봉사, 교류로 나눔과 연대의 정신 이어가

워싱턴 D.C. 지회는 2026년 여름, 장학사업과 지역사회 봉사, 동창 간 교류를 통해 이화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이어갔다. 6월에는 지역사회 한인 학생 3명을 선발해 총 3,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장학생은 김예선(조지타운대 대학원), 최예담(조지타운대), 해나 김(웨스트필드고)이다. 당초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우수한 지원자가 많아 이사회의 추가 지원을 통해 3명 모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차세대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했다.

7월에는 워싱턴 D.C. 지역 비영리단체 Little Lights의 학생들을 위한 백팩 및 학용품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봄 야유회에서 열린 '이화 함께 걷기'와 베이킹 세일, 동창들의 후원을 통해 총 2,700달러를 모금했으며, 동창들이 직접 학용품을 준비해 40개의 백팩을 완성하여 Little Lights에 전달했다.

모교 후배들과의 뜻깊은 만남도 이어졌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화여대 창업지원단 교수진 및 창업탐색팀 학생들과 만나 미국 현지 시장과 창업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박소희(커미부 86) 동창은 딸 Annie Park과 함께 Sarah's Handmade Ice Cream의 창업과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조언을 나누었다.

동창 간의 교류도 한층 넓어졌다. 2011년부터 주로 메릴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 온 Knitting Club은 올해 처음으로 버지니아에서도 모임을 가졌다. 6월 말 최숙자(문정 69) 동창의 집에서 열린 첫 버지니아 니팅 모임에서는 Calvary Women's Shelter에 기증할 겨울 모자를 함께 만들었다. 모임 후에는 지회 최고령 동창인 김복희(음악 49) 동창을 찾아 안부를 나누며 세대를 잇는 따뜻한 선후배의 정을 이어갔다.

한편, 지회는 현재 새로운 동창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총회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올봄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백팩 및 학용품 지원 활동에 참여한 워싱턴 D.C. 지회 동창들



동창들의 다양한 관심과 의견을 반영해, 9월 Ewha Cooking Class를 시작으로 뮤지컬 〈Maybe Happy Ending〉 단체 관람, 정신건강 세미나, 맛집 탐방, Young Alumni 모임 등 관심사별 소규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더욱 폭넓은 교류와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_ 이정화(융보 94)

장학금 수혜자 선정 및 여름 야외 음악회 모임

5월 28일(목)에는 박승혜(종음 02) 동창의 '파랑새 프로젝트(Bluebird Project)' 연주회에 이정화 회장 및 일부 동창들이 참석하여 연주를 감상하고 격려했다. 5월 29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14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는, 시카고 예술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이지선(섬예 96)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에 추대되고 '빛나는 이화인' 상을 수상하여 지회 동창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로서 일리노이 지회는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이화인'을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뒤늦게 전해진 김태영(커미부 07) 동창의 로욜라 시카고 대학의 부교수 승진 소식에도 많은 동창 및 후배들이 함께 기뻐했다.

여름 콘서트에 참석한 일리노이 지회 동창들



한편,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화 일리노이 학술대회 참가 지원금(EIL Conference Travel Grant)의 신청 접수가 7월 말에 마감되었다. 해당 지원금은 장학·후원위원회에서 한 달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최종 수혜자를 선정했고 9월 가을 피크닉 모임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8월 15일(토)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의 대표적인 여름 야외 음악회 시리즈인 '그랜트 파크 뮤직 페스티벌(Grant Park Music Festival)'에서 여름 콘서트 및 피크닉 모임을 가졌다. Jay Pritzker Pavilion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창들이 모여 다과와 와인을 나누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함께 감상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이교연(영교 70)

숲속에서 열린 정기모임과 야유회

6월 6일(토) 펜실베이니아주의 Ridley Creek State Park에서 21명의 회원이 모여 정기모임과 야유회를 가졌다. 숲속의 넓직한 정자에서 이교연 회장의 개회 인사와 박윤옥(간호 75) 전 회장의 기도에 이어 전체 사진을 찍은 후 2부 순서로 금년도 장학금 수혜자로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 과정 중인 서정덕 씨를 선정하여 장학금 1,000달러를 보내드렸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동안 필라델피아 지회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한 박찬수(간호 75) 동창을 이사로 영입하였음을 알렸다.

점심으로는 임원진이 다양하게 열심히 준비한 여러 음식과 이화 사위들이 솜씨를 발휘해 맛있게



박찬수 동창의 집에서 열린 8월 모임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구워준 불고기를 들며 준비한 손길들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식사 후에 이어진 여흥 시간에는 업그레이드 된 사자성어 게임과 율동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모교 교가 제창으로 하루의 일정을 마감하였다.

8월 1일(토)에는 박찬수 동창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과자와 케이크로 후식을 준비해 주던 지문자(기악 67) 동창이 멋진 송별 케익을 준비해 주어 딸들이 살고 있는 코네티컷으로 이주하는 박윤옥 전 회장의 송별 파티를 멋있게 장식하게 해주었다. 이어서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안내와 필라델피아 지회의 10월, 12월 모임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회원들의 앙코르 강연의 요청에 부응하여 김영석 교수님의 '십자가를 찾아 떠난 여정: 성녀 헬레나, 성서 고고학의 어머니가 되다'라는 주제로 로마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과 함께 헬레나 성녀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8월 모임의 피날레는 김 교수님의 지도로 〈Homeward Bound〉라는 곡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반주를 해준 분이 지난 1970년대 피아니스트로 한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린 한동일 씨의 형님인 한동휘 선생님이다. 필라델피아 지회에는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한 지회이다.

휴스턴 지회

회장 __ 이은경(사교 92)

꾸준히 이어진 독서모임

휴스턴 지회는 상반기 활동을 5월에 마무리하고 여름 동안은 정기 모임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휴스턴 지회 내 독서 모임인 이화 북클럽은 여름에도 꾸준히 이어져 총 세 번의 모임을 가졌다.

6월 12일(금)과 7월 17일(금)에는 휴스턴 한인회관 도서실에서 모여서 각각 에이모 토울스의 책 『테이블 포 투』와 고전 도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책 『노인과 바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14일(금)에는 이영일(의직 72) 동창 집에서 모여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늘 그렇듯이 책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책을 통해 시야가 시공간을 넘어 확대되는 소중한 경험이야말로 무더운 휴스턴의 여름을 보내는 이화인들의 지혜로운 피서법이라는 생각을 하며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동창들이 있어 더욱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독서 모임을 가진 휴스턴 지회 동창들



한진수(서양 49) 동창


한진수 동창

6월 9일(화)부터 20일(토)까지 모교 이화아트센터에서 한국 최초의 미대생인 한진수 명예교수의 100번째 봄을 축하하며 '석정 한진수 교수 상수전'을 가졌다. 모교 명예교수인 한진수 동창은 모교 미술과 1회 졸업생으로 학생과 작가, 교육자의 삶을 모두 이화와 함께한 상징적 존재로 평가받는다. 퇴임 당시에는 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고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송창주(가정 62) 동창


송창주 동창

이준열사기념관장 송창주 동창은 7월 11일(토) 이준 열사 순국 119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을 한국 및 네덜란드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 외곽의 이준 기념교회에서 가졌다. 추모식은 홍석인 주네덜란드 대사의 축사와 반 자넨 헤이그 시장의 기념사로 시작됐다. 소프라노 박찬정이 가곡 〈봉선화〉를 불렀으며, 마야 보피베츠 레이던대학교 조교수는 '이준의 의미: 1907년부터 현재와 그 너머까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나유성 재네덜란드 한인학생회장이 이준 열사의 유훈을 낭독했고,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경은(동양 66) 동창


김경은 동창

8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강원 평창에 있는 평온AI박물관에서 '오수재의 면화동 이야기'라는 주제로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김경은 동창은 평창 면화동의 자연과 작업실 '오수재'를 모티프로, 삶의 쉼과 내면의 평화를 담아 현대인에게 위로와 사유의 시간을 전하는 전시를 선보였다.

김선향(영문 66) 동창


김선향 동창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김선향 동창의 시집 『안녕, So Long』이 '미하이 에미네스쿠 국제아카데미 2026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미하이 에미네스쿠 국제아카데미는 루마니아에 있는 국제 문학단체이다. 미하이 에미네스쿠 국제아카데미 선정위원회는 『안녕, So Long』이 지닌 시적 깊이와 탁월한 명료성, 깊은 울림을 전하는 예술적 비전을 높이 평가해 만장일치로 수상작에 선정했다.

원문자(동양 66) 동창


원문자 동창

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원문자 동창이 대한민국 예술원 제71회 회원으로 선발되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우리나라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을 회원으로 선출하는 국가 차원의 예술기관이다. 이번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선발은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 탐구와 작가만의 독창적 예술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규화(가정 66) 동창


조규화 동창

의류학계와 패션산업업계가 함께 설립한 (사)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패션공모전이 6월 20일(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여

기서 모교 명예교수인 조규화 동창이 학회 초대 회장으로서 지난 30년간 산학협동 학회 창립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로 '학회 창립 30주년 특별헌정 공로패'를 받았다.

윤영자(섬예 67) 동창


윤영자 동창

녹미회원인 윤영자 동창이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17회 현수회 전시회'에 작품 두 점을 출품하였다. 윤영자 동창은 현대 자수뿐 아니라 민화에도 오랜 세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인 녹미회가 주최하는 녹미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함없는 창작 열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임혜숙(임성이, 가정 68) 동창


임혜숙 동창

임혜숙 생명의 전화 이사장은 9월 1일(화) '생명의 전화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비전포럼'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했다. 또한 9월 4일(금)에는 생명의 전화와 KBS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자살예방캠페인 '제21회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를 서울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고(故) 황성숙(국문 68) 동창

고 황성숙 동창 남편 김권식 이화국제재단 이사가 대학 발전을 위한 염원과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한 애정을 담아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으로 100만 달러(한화 약 15억 원)를 기부했다. 이에 모교는 6월 11일(목) 교내 ECC 앞뜰에서 '김권식 이화국제재단 이사 기금전달식'과 '황성숙·김권식 기념식수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김 이사 가족의 나눔 정신과 애교심을 기리기 위해 식수 옆에 기념 현판을 제막했다. 김권식 이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엔지니어링 기업 '이브이에스(EVS)'를 운영하고 있다.

박영신(영문 71) 동창


박영신 동창

박영신 동창이 '2026 Dr. James Young Arts Legacy Award'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임스 영 예술상은 매년 지역사회 예술 발전에 공헌한 한 명에게 주어진다. 박영신 동창은 40여 년 동안 도예가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풀러턴의 머켄탈러 문화원에서 20년째 도예를 가르치고 있다. 수상을 기념하여 김영신 동창의 40여 년 예술 인생을 한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회고전 'CREATE AND CONNECT—A Journey Through Clay, Culture, and Community'를 11월 15일(일)부터 2027년 1월 9일(토)까지 풀러턴의 머켄탈러 문화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양수화(종음 71) 동창


양수화 동창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 겸 단장인 양수화 동창이 제1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참가작이며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 35주년 기념 공연으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6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이혜원(의직 71) 동창


이혜원 동창

중부재단 명예 이사장 이혜원 동창이 모교에 이화 웨스트캠퍼스 건립 기금 5억 원을 기부하였다. 기금 전달식은 6월 22일(월) 모교 아령당에서 진행되어 이혜원 동창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모교에서는 이향숙 총장,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박은영 대외협력처 부처장 등 교내 주요 인사가 함께 자리해 나눔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혜원 동창은 중부재단을 통해 모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다.

강승애(서양 72) 동창


강승애 동창

9월 10일(목)부터 17일(목)까지 일산 덕양구 화정동 소재 아트월 갤러리에서 '생명'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는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능기부로 마련돼 작품 감상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전했다. 강승애 동창은 2022년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장과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수채화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보희(동양 74) 동창


김보희 동창

8월 26일(수)부터 10월 18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갤러리 현대에서 'TOWARDS: There Was Light'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인 김보희 동창은 40여 년간 자연을 관찰하고 기억해 온 회화 세계를 '빛'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제주 풍경과 생명, 시간의 흐름을 담아 한국화의 전통을 동시대적인 회화 언어로 확장해 온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최순희(장미 75) 동창


최순희 동창

㈜라까사웍스 상임고문 최순희 동창이 모교에 '조형예술대학 건축기금' 3억 원을 기부하였다. 6월 16일(화) 모교 본관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최순희 동창과 부군 이현구 라까사웍스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이향숙 모교 총장,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최정아 학생처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등 교내 인사가 함께 자리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순희 동창이 그동안 '공간디자인전공 발전기금', '이화 웨스트캠퍼스 건립기금' 등 모교를 위해 후원한 누적 기부액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조윤라(무용 77) 동창


조윤라 동창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어제 같은 오늘 그리고 내일은 Ⅲ〉을 공연하였다. 이 공연은 '현역 최고령 발레리나'로 꼽히는 조윤라 동창의 지난 60년 간의 발레 일대기를 집약한 특별한 무대였으며, 총 3부작으로 나뉘어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상과 현재의 열정,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아냈다.

김인성(영문 80) 동창


김인성 동창

김인성 동창의 역서 『아랍문화의 미학』(사회평론아카데미)이 지난 7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인성 동창의 저서 『중세 한국미술, 이슬람 문화와 만나다』(소명출판)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학술 예술분야'에 선정되었다. 김인성 동창은 현재 런던대학교 아프리카 아시아 연구원(SOAS) 연구교수로 있다.

이해경(동양 80) 동창

6월 17일(수)부터 7월 4일(토)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가이아 서울에서 7년 만의 개인전 '초록 서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이해경 동창이 오랫동안 이어온 '초록서정' 연작에 '사랑'이라는 부제를 더해 자연과 생명, 조화와 공존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이해경 동창은 약 30년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한국 채색화 작가다.

김엘림(법학 81) 동창


김엘림 동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김엘림 동창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5대 원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9년 9월 8일까지 3년이다. 김엘림 동창은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

구 활동을 시작해 2002년까지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제주지역대학장, 전북지역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고(故) 우순옥(서양 81) 동창


우순옥 동창

8월 12일(수)부터 10월 3일(토)까지 서울 신문로 성곡미술관에서 고 우순옥 동창의 작가세계를 조망하는 회고전이 열렸다. 회고전 '우순옥_예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1980년대 초기 작업부터 2023년 작고 직전까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였다. 고 우순옥 동창은 1995년부터 2022년 정년퇴임까지 모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이화원(불문 81) 동창


이화원 동창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회장 이화원 동창이 5월 21일(목) 루마니아 크라이오바에서 열린 국제연극평론가협회(AICT/IATC) 총회에서 2026년~2028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국제연극평론가협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산하 공식 기구로서, 총 10인의 집행위원을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한자경(철학 81) 동창


한자경 동창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 한자경 동창이 7월 10일(금)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학술원 회원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 지위를 누리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한편 한자경 동창은 신간 『무아와 일심』을 출간하였다. 한자경 동창은 불교 교학의 핵심인 '무아(無我)'와 '일심(一心)'이 어떻게 하나의 붓다 가르침으로 회통할 수 있는지 일곱 번의 강의를 통해 논증한다.

김영숙(조소 82) 동창


김영숙 동창

8월 19일(수)부터 25일(화)까지 '특립동행-이소 개인전'이라는 주제로 야다하우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윤혜온(과교 82) 동창

윤혜온 동창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신임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윤혜온 동창은 1994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 입사해 현재 책임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회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석좌교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총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배미애(사교 84) 동창


배미애 동창

배미애 동창이 부산화랑협회 제16대 회장에 선출되어 8월부터 2년간 협회를 이끌며 부산 미술시장 활성화와 화랑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배미애 동창은 리앤배(LEE & BAE) 갤러리 대표이며, 현재 한국화랑협회 지역이사도 맡고 있다.

신지화(성악 84) 동창

9월 19일(토) 서울사이버대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신지화 석좌교수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였다. 신지화 동창은 9월 1일(화)자로 서울사이버대 성악과 석좌교수에 임용됐으며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겸하고 있다.

윤정숙(사회 84) 동창

기후활동가 윤정숙 동창이 8월 24일(월) 민간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윤정숙 동창은 한국여성민우

회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녹색연합 상임대표 등을 지낸 시민사회 활동가이며, 녹색전환연구소 창립 이사와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60+기후행동 운영위원과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윤정숙 동창

장미화(피아노 85) 동창

장미화 동창이 고문으로 있는 이화라로제피아노학회의 제7회 정기연주회 '오후 세 시, 건반 위의 여름'이 8월 16일(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개최되었다. 영음예술기획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세대와 경력을 지닌 피아니스트들이 참여해 폭넓은 피아노 앙상블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정정엽(서양 85) 동창

6월 17일(수)부터 8월 12일(수)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밈 M에서 개인전 '지구독대여자'를 가졌다. 전시에서는 〈소녀생존기〉 연작 등 신작 23점을 공개했다. 정정엽 동창은 2022년 이중섭미술상, 2020년 양성평등문화상, 2018년 고암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박혜성(서양 86) 동창


박혜성 동창

박혜성 동창은 7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실험실갤러리에서 제2회 개인전 '여름 정원'을 열었다. 이어 8월 24일(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섯 미술관으로 떠나는 그림 여행을 담은 책 『어쨌든 미술관은 재밌다』를 출간했다.

최 선(제약 87) 동창


최 선 동창

모교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최 선(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장) 동창이 윤주영 모교 화학·나노과학과 교수, 남기택 연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이끈 국제 공동연구팀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동시에 약물이 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과정을 스스로 형광으로 보여주는 '자가보고형(Self-Reporting) 항암분자'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6월 3일(수)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에 게재됐다.

허금주(영문 87) 동창


허금주 동창

전 교보생명 전무 허금주 동창이 9월 8일(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허금주 동창은 사단법인 세계여성포럼 한국지부를 창립하고, 창립회장으로서 국내외 여성 리더들의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이끌었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장학재단 등에서도 여성 및 청년의 성장과 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했다.

김금희(체육 88) 동창


김금희 동창

김금희 동창이 6월 13일(토) 실리콘밸리한인회 2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금희 동창은 '함께하는 힘, 더 큰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인사회의 화합과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차세대 육성과 주류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주(의학 88) 동창


김영주 동창

모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주 동창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상근이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8월 29일(토)부터 2년이다. 김영주 동창은 임상·연구 경험을 토대로 의약·바이오 분야 정책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및 기업·기관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호해란(조소 88) 동창


호해란 동창

호해란 동창이 열린송현광장에서 개최된 '제3회 서울조각페스티벌'에서 서울조각상 입선작에 이름을 올렸다. 다채로운 조각 작품들이 경합을 벌인 이번 축제에서 호해란 동창은 탁월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며 뜻깊은 성과를 거두어 동창회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김경자(제약 89) 동창


김경자 동창

김경자 동창이 6월 21일(일)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되었다. 김경자 동창은 약사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으며, 현재는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영지(서양 89) 동창


김영지 동창

김영지 동창이 7월 9일(수)부터 18일(토)까지 한벽원미술관 신관에서 제22회 개인전 '잠재된 여정'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색의 깊이가 돋보이는 추상화 23점을 발표했다. 김영지 동창은 현재 대전 우송정보대학 만화·웹툰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혜영(의학 89) 동창


박혜영 동창

박혜영 동창이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한국여자의사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7월 11일(토)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박혜영 동창은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이사장이며, 2026년부터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원(조소 89) 동창


이정원 동창

6월 10일(수)부터 14일(일)까지 봉산문화회관 2층 4전시실에서 제4회 가자 미(美)전 '존재, 관계 그 구조에 대하여'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 전시는 이정원 동창 기획, 아트센터 원리 주최, 보나갤러리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김은하(한음 90) 동창


김은하 동창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동창이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김은하 동창은 2000년 국악방송에 입사해 라디오제작부와 광주국악방송 및 국악방송 심의감사실 등을 거치며 이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서울예술대 한국음악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박광수(독문 90) 동창


박광수 동창

박광수 동창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8월 3일까지다. 박광수 동창은 여성신문 편집국장, 마인드프리즘 부사장,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박효실(서양 90) 동창


박효실 동창

7월 20일(일)부터 8월 6일(목)까지 구로디지털단지 내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1차에 위치한 NJ ART에서 제8회 개인전 '마주한 순간들'을 열었다. 박효실 동창은 마주한 풍경과 공간에서 느낀 순간을 기록하고, 계절과 빛, 바다의 변화 속에 머물며 색과 붓질로 시간과 감정을 담아냈다.

오주연(조소 90) 동창


오주연 동창

7월 15일(수)부터 8월 15일(토)까지 '공부가 싫은 책가도'라는 주제로 금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신화(서양 90) 동창


이신화 동창

7월 15일(수)부터 21일(화)까지 '인사 1010갤러리'에서 제6회 개인전 '2026 나의 고백–장백산에서'를 열었다. 또한 이신화 동창은 장애학을 알리고, 장애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2026 내일은 있다(2026 Tomorrow Will Come)'라는 장애학실천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정연(약학 90) 동창


이정연 동창

모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연 동창이 유네스코(UNESCO)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사무국이 운영하는 '생약·한약재 및 관련 제제의 스포츠 가치·윤리·진실성 글로벌 태스크포스(Global Task Force 2026~2027)'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정연 동창은 현재 대한스포츠약학회(SPARK) 회장을 맡아 국내 스포츠약학 분야의 학술·교육 기반 구축을 이끌고 있다. 한편 대한스포츠약학회는 7월 4일(토) '한국 스포츠약학의 현재와 미래: 융합적 접근'을 주제로 제1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경란(커미부 90) 동창


전경란 동창

전경란 동창이 동의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식은 8월 18일(화) 동의대학교 국제관 석당아트홀에서 열렸다. 임기는 3년이다. 전경란 동창은 2006년 동의대 교수로 부임해 대외홍보협력센터 소장, 교무처장, IR본부 본부장, 교학부총장을 역임했다. 또한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지역발전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등 교육과 지역발전, 문화산업 분야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강민휘(불문 91) 동창

강민휘 동창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로 선임되었다. 강민휘 동창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거치며 30여 년간 국제기구에서 활약해 온 베테랑이다.

이보름(동양 92) 동창


이보름 동창

6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아그네 아트강릉26'에 참가해 대표작 〈Somatic Memory〉를 비롯한 신작 16점을 선보였다. '아그네 아트 강릉26'은 강릉미술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강릉시가 후원하는 아트페어이다.

김정희(법대·법전원 93) 동창


김정희 동창

김정희 동창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김정희 동창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국장, 농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7월 여성 최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임명돼 2025년 10월까지 검역본부를 이끌었다.

이향운(의학 93) 동창

이화의료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이향운 동창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K-NeuroMind NEXUS: 뇌인지·정서 교차모달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 플랫폼 개발'의 주관 연구팀

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7개월 동안 총 50억 6,800만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 연구개발사업이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국내 주요 대학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이화의료원이 사업을 총괄하게 됐다.


이향운 동창

정선희(동양 93) 동창

7월 7일(화)부터 8월 8일(토)까지 경기도 오산 메르오르 갤러리에서 'MOVE 모든 사소한 것의 비범함'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정선희 동창은 작은 존재와 이름 없는 움직임 속에서 자유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품 세계를 담아냈다.


정선희 동창

한송희(물리 93) 동창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한송희 동창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3년이다. 한송희 동창은 2006년부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비상임이사를 맡아 기관 운영과 업무를 경험한 바 있다.


한송희 동창

이소영(법대·법전원 94) 동창

5월 22일(금)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소영 동창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장(부이사관)을 거쳐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며 국토부의 핵심 보직을 맡게 되었다.

양윤정(루나양, 동양 96) 동창

6월 6일(토)부터 20일(토)까지 서울 용산의 '디어아크 카페&갤러리'에서 개인전 'You Are My Rest'를 가졌다. BTS 멤버들을 연필로 드로잉한 이 작품들은 단순한 팬아트를 넘어, 예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전시는 일본 긴자를 비롯한 일본 전국 순회전도 계획되어 있다.


양윤정 동창

이지선(섬예 96) 동창

5월 29일(금) 모교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화 140주년 기념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었다. 이지선 동창은 미국 시카고예술대학(SAIC)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지선 동창

박혜수(조소 97) 동창

8월 7일(금)부터 10월 18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를 가졌다. 박혜수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진실을 알면서도 집단의 이익과 결속을 위해 외면하는 사회의 태도를 겨냥한다.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 전시 연계 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박혜수 동창

안인모(피아노 97) 동창

6월 11일(목)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6월 강연 '루브르에서 쇼팽을 듣다'를 진행하였다. 강연은 명화 속에 담긴 예술가들의 이야기와 클래식 음악을 함께 만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피아니스트인 안인모 동창은 현재 유튜브 채널 〈안인모의 클래식이 알고 싶다〉를 운영하며 클래식 음악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고 있다.

임영아(법대·법전원 97) 동창

6월 29일(월) 문화체육관광부 새 대변인(국장급)에


임영아 동창

임명되었다. 1990년 문체부 전신인 문화부가 출범한 이후 36년 만에 탄생한 최초의 여성 대변인이다. 임영아 동창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장, 저작권산업과장,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장,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5년 12월엔 체육국 체육협력관으로 임명됐다.

전영신(환경 97) 동창


전영신 동창

미국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교수로 재직 중인 전영신 동창이 8월 6일(목) '2026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공동으로 시상하는 '올해의 공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전영신 동창은 기후·에너지·자원 회수·환경 문제에 대한 공학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IUPAC(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으로부터 '2025 IUPAC 세계우수여성화학자·화학공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정영락(도예 97) 동창


정영락 동창

6월 3일(수)부터 7일(일)까지 프랑스 파리 7구의 35 rue de Beaune에서 열린 전시 'Traces in Clay: Korean Sensibility'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도자재단과 Magna Gallery Paris의 'Korean Ceramics'가 함께 마련한 행사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프렝땅 아시아띠크(Printemps Asiatique)' 주간 행사와 연계해 개최됐다.

김보연(중문 98) 동창

우리베연구소 소장인 김보연 동창이 7월 7일(화)부터 15일(수)까지 'GOOD MOSI 좋은 모시' 전시를 개최했다. 김보연 동창은 중문학을 전공한 후 섬유예술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통 섬유 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예술의 접목을 위해 활발한 연구와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보연 동창

유수연(화학 98) 동창


유수연 동창

유수연 동창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의원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유 동창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복지와 공동체 발전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교육과 복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주요 가치로 실천해 왔다.

이효선(레이나 리, 서양 99) 동창


이효선 동창

8월 17일(월)부터 9월 16일(수)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장유와인문화박물관 내 1892아트센터에서 개인전 'JOY BEYOND—삶을 지나, 기쁨이 피어나다'를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효선 동창 특유의 선명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이 돋보이는 회화 작품 20여 점이 소개됐다. 이효선 동창은 현재 아주글로벌아트페어 운영위원장, 아주경제 중국본부 문화예술 고문, 아주국제미술교류전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중 문화예술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최은영(동양 99) 동창

8월 12일(수)부터 30일(일)까지 2026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전인 최은영 개인전 '나는 무엇을 하다 죽을까'가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최은영 동창은 한지 위에 먹과 분채를 여러 겹 쌓으며 제주 현무암의 거친 대지를 그려왔다.

이진영(커미부 00) 동창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활약 중인 이진영 동창이

8월 6일(목) 아리랑TV 〈K-Culture Dive〉 '한류피플' 코너에 생방송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진영 동창은 하와이 한인 이민사 120년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무지개 나라의 유산〉과 음악 영화 〈하와이 연가〉를 제작하여 세계에 한국인의 삶과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이진영 동창

홍은희(영교 01) 동창

글로벌 에너지 사업 전문가인 홍은희 동창이 8월 31일(월)자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임 HMG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으로 전격 영입되었다. 홍은희 동창은 다국적 에너지 기업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에서 18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수소 사업 개발 조직을 총괄하는 등 에너지 밸류 체인 전반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해 왔다.


홍은희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8월 29일(토)부터 9월 20일(일)까지 공간 듬 갤러리의 '2026 집 프로젝트'에서 'Leaves Leave'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순임 동창

김예성(도예 02) 동창

공예 전시기획 전문가인 김예성 동창이 7월 20일(월) '2027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이끌 예술감독으로 공식 위촉되었다. 지난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책임큐레이터로 활약했던 김예성 동창은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아 '역대 최연소 예술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순회전시 사업인 '찾아가는 공예명작전'의 호남·제주권 전시 '공유자산(Common Wealth)'의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김예성 동창

박승혜(종음 02) 동창

파랑새 프로젝트(Bluebird Project)의 일원으로 5월 28일(목) 미국 윌링 시카고한인문화원의 비스코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파랑새 프로젝트는 시카고에 있는 재능 있는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로 구성된 앙상블팀이며, 박승혜 동창은 솔로와 실내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무대를 통해 독창적인 음악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박승혜 동창

김초혜(동양 04) 동창

9월 16일(수)부터 23일(수)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벽원미술관 본관에서 열아홉 번째 개인전 'Imagine the Forest'를 가졌다. 팬데믹 시기 연꽃 연작 기획전 이후 4년 만에 선보인 이번 신작 개인전에서 김초혜 동창은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낸 다채로운 회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김초혜 동창

서영민(섬예 06) 동창

서영민 동창이 '2026 KCDF 공예·디자인 공모전시' 중견 부문 작가로 선정되어 8월 26일(수)부터 9월 6일(일)까지 서울 인사동 KCDF갤러리 1전시실에서 개인전 '무한한 감정세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영민 동창은 가느다란 철사와 실을 반복적으로 꼬고 엮어 인간 내면의 감정과 관계의 흔적을 세포 형상으로 시각화한 설치 및 평면 신작들을 선보였다.


서영민 동창

윤정민(간호 06)·김민정(간호 11) 동창

모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윤정민·김민정 동창이 박소현 모교 간호대학 교수와 함께 뜻을 모아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간호과학관 건축기금'을 기부하였다. '간호대학 교수진 기금전달식'은 6월 24일

(수) 모교 본관에서 열렸다. 모교는 이번 기금을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Campus) 내 간호대학 인프라를 확충하고 간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할 방침이다.

김태영(커미부 07) 동창


김태영 동창

김태영 동창이 미국 로욜라대학교 시카고(Loyola University Chicago) 커뮤니케이션 대학의 부교수로 승진했다. 2019년부터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김태영 동창은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위기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효과성 등 전략적 조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수미(서양 08) 동창

'2026 슬도아트 문화공장 방어진 대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 25일(토)부터 8월 30일(일)까지 울산 방어동에 위치한 문화공장 방어진 내 스페이스 중진 2.5에서 개인전 '사이에서(In Between)'를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 노수미 동창은 그래픽 노블과 그래픽 포엠에 수록된 이미지의 원화 및 디지털 프린트 작업 32점과 실제 출판물을 함께 선보였다.

양정은(생미 08) 동창


양정은 동창

디자인 스튜디오 '사물의언어'를 운영 중인 디자이너 양정은 동창이 커피 브랜드 '비로소커피'의 브랜딩 프로젝트로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양정은 동창은 서울 신수동에서 제주까지 매장을 확장한 '비로소커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설계하고 브랜드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이인현(피아노 09) 동창

피아니스트 이인현 동창이 8월 25일(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에서 인문학 특강 '피아노로 듣는 인생의 선율: 위대한 삶, 위대한 음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인현 동창은 특히 쇼팽과 베토벤의 드라마틱한 인생과 음악을 피아노 연주와 해설로 풀어내어 클래식 음악을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였다.


이인현 동창

박초롱(사학 10) 동창


박초롱 동창

논문 「신라 국가예제 연구(新羅 國家禮制 硏究)」로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초롱 동창이 2026년 2학기 자로 국립목포대학교 인문대학 인문콘텐츠학부 역사콘텐츠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은영(도예 10) 동창


이은영 동창

이은영 동창의 작품이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서 예술적 완성도와 독창성을 인정받아 우수상 수상작(Excellence Prize)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국제공모전은 전 세계 77개국에서 총 1,397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동시대 도예의 다양한 작품과 조형적 가능성을 선보였다.

김세은(서양 13) 동창


김세은 동창

8월 24일(월)부터 10월 18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 K2에서 개인전 '핏월과 픽토(Pictos and Pitwall)'를 개최한다. 김세은 동창은 모터스포츠의 전략 공간인 '핏월'과 시각언어 '픽토그램'을 축으로, 정보 과잉 사회에서 개인이 위치를 감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김세은 동창은 2020년 금호영아티스트 선정에 이어 올해 제4회 서울예술상 포르쉐 프런티어상을 수상하였다.

이세정(섬예 13) 동창


이세정 동창

이세정 동창이 '제2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결선에 진출하여 9월 1일(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에서 열리는 기념전시에 참여하였다. 이세정 동창은 전통 백화청화 운룡문 항아리의 문양을 면사와 견사 자수로 재해석한 〈부드러운 백화청화 운룡문호〉를 선보였다.

정소윤(섬예 14) 동창


정소윤 동창

정소윤 동창이 '제2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결선에 진출하여 9월 1일(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에서 열리는 기념전시에 참여하였다. 정소윤 동창은 재봉틀을 활용한 머신 스티치 기법으로 감정과 기억을 입체적으로 풀어낸 출품작 〈나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를 선보였다.

맹연선(성악 17) 동창


맹연선 동창

구리 출신의 소프라노 맹연선 동창이 8월 12일(수) 경기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포네클래식 콩쿠르 1위 등의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 맹연선 동창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성악가를 넘어 구리시의 정책 및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 폭을 넓히게 됐다.

윤주현(의전원 17) 동창


윤주현 동창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주현 교수가 6월 20일(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을 수상했다. 윤주현 동창은 '두경부 수술 후 대용량 조직 결손 재건을 위한 편도줄기세포 기반 생체지지체 플랫폼 개발' 연구과제로 신진 연구자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지현(무용 17) 동창


이지현 동창

무용단 '22 Collective LAB(22콜렉티브랩)' 대표이자 예술감독인 이지현 동창이 총감독·안무·연출을 맡은 〈CREW〉가 9월 22일(화)과 23일(수) 오후 7시 30분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었다. 평택시문화재단의 '2026 전문예술 지원사업' 선정작인 〈CREW〉는 대금 연주, 서양 음악,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60분 분량의 컨템포러리 한국무용 공연이다.

최문정(교육 18) 동창


최문정 동창

최문정 동창은 모교 교육학과 졸업 후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거쳐 작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 라이프텍 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 동창은 의류학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텍스타일 센서와 웨어러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김진선(조소 19) 동창


김진선 동창

8월 8일(토)부터 23일(일)까지 서울 중구 그블루 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 'between'을 가졌다. 김진선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연결과 분리를 반복하는 가변적인 구조를 활용해 공간의 경계와 관계의 변화를 다룬 조형 설치 신작들을 선보였다.

김 현(한음 19) 동창

8월 16일(일)부터 30일(일)까지 갤러리 자인제노에서

개인전 '물듦과 결: 염리(染理)'를 개최하였다. 김 현 동창은 모교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한 뒤 회화로 방향을 전환한 젊은 작가다. 전시 '물듦과 결'은 한 젊은 작가가 전통에 물들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결'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전시다.

김지영(섬예 20) 동창


김지영 동창

7월 6일(월)부터 9월 2일(수)까지 KT&G 대치갤러리에서 개인전 'On the Way: 중력연습'을 개최하였다. 김지영 동창은 직조, 자수, 페이퍼메이킹 등의 기법을 바탕으로 회화와 조각, 표면과 구조,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섬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작품을 하나의 풍경이자 감각이 머무는 장면으로 제시하였다.

고(故) 김소연(의학 21) 동창

고 김소연 동창의 유족이 모교 의과대학에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하였다. 5월 20일(수) 모교 본관에서 진행된 '김소연 기념 의대 장학금' 기금 전달식에는 고 김소연 동창의 부모 김철민·이은숙 씨가 참석하여 "딸의 꿈을 후배들이 대신 피워내 사회를 밝게 이끌길 바란다"며 기부 취지를 전했다.

이예린(도예 22) 동창

이예린 동창이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올해의 분청사기박물관 장기 입주작가'로 선정되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입주작가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 도자 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예린 동창은 분청사기(粉靑沙器)의 조형미와 예술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차세대 도예가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주(대학원 24) 동창

5월 27일(수)부터 6월 17일(수)까지 대구 중구 갤러리 제이원에서 'Hide and Seek'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박진주 동창은 작업에서 내면의 상처와 불완전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타인과의 연결과 공존 가능성으로 확장하는 심리적 자화상을 선보였다.

이수빈(화공신소재공학 24) 동창


이수빈 동창

이수빈 동창이 '마리 퀴리 펠로우십'에 선정됐다. 마리 퀴리 펠로우십은 노벨상 수상자 마리 퀴리의 이름을 딴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수빈 동창은 오는 10월부터 프랑스 파리-사클레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해 3년간 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으며 저차원 소재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예지(장미 24) 동창


이예지 동창

이예지 동창의 디자이너 브랜드 '이츠예(It's Yeah)'가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일지에서 2026 팝업 전시를 개최하였다. 팝업 전시에서는 의상, 가방, 오브제 및 아트워크를 선보이며, 예술과 럭셔리 패션을 연결하는 이츠예의 브랜드 세계관과 디자인 방향성을 소개하였다.

고(故) 장혜원(약학 50) 동창


장혜원 동창

모교 약학대학 제2회 졸업생인 장혜원 동창이 지난 6월 1일(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하였다. 고인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1991년~1992년에는 모교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뉴욕지회 창립을 주도하고, 이화국제재단 설립 공헌 및 이사(1970년~2003년)를 역임했으며,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 제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창이 펴낸 새 책

부서진 세월의 흔적

이재연(독문 67)

이재연 지음 / 강

소설가로 활동 중인 이재연 동창이 새 소설집 『부서진 세월의 흔적』을 펴냈다. 평단에서는 작가가 인물들을 끊임없는 한계 상황에 세워두면서도, 그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빛을 찾아가는 몸부림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평한다. 이재연 동창은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소설집 『무채색 여자』, 장편소설 『황혼무렵엔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 산문집 『누군가 나를 부른다』, 『바람의 항구』 등을 펴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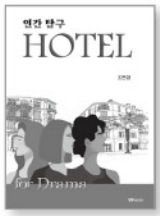


인간 탐구 HOTEL

조연경(법학 75)

조연경 지음 / 선우미디어

조연경 동창이 장편 소설 『인간 탐구 HOTEL』을 출간하였다. 호텔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과 삶을 희로애락을 관찰한 작품이다. 조연경 동창은 KBS TV 가족계획 드라마 〈금방울 은방울〉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으며, 〈사랑의 조건〉, 〈여인극장〉, 〈사랑과 전쟁〉 등 30여 편의 작품을 집필하였다. 조연경 동창은 드라마작가, 소설가로 활동하는 한편 공주영상정보대학 겸임교수, YWCA 홍보출판위원, 《조선일보》 메트로팀 여성위원, 환경협의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잃어버린 환상

송기정(불문 80)

발자크 지음·송기정 옮김 / 민음사

송기정 동창이 발자크의 『잃어버린 환상』(전 3권) 번역서를 출간했다. 부, 명예, 지위, 사랑과 쾌락까지, 모든 것을 욕망하는 의지가 냉혹한 사회에 맞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잃어버린 환상』은 '인간극'이라는 웅장한 건축물의 축조 비결이 집약된 최고의 3부작이다. 모교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인 송기정 동창은 은퇴 후 활발하게 연구와 번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음 박물관

황주리 (서양 80)

황주리 글·그림 / 은행나무

황주리 동창이 산문집을 출간하였다. 이번 산문집에는 황주리 동창 스스로 대표작이라고 여기는 그림들이 글과 함께 실려 있다. 책으로 만나는 전시회인 셈이다. '글 쓰는 화가'로 널리 알려진 황주리 동창은 "글과 그림은 내게 한 우물이다. 미술과 문학이 서로 윈윈한다"라고 말한다. 나날의 일상 속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박동들이 모여 '마음의 박물관'이 된다고 말하는 황주리 동창은 일상을 살아가며 내면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사유를 펼치는가 하면, 지나온 삶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었다.



라인 강변에 핀 무궁화

유한나(최소은, 독문 81)

유한나 지음 / 선우미디어

유한나 동창이 여섯 번째 수필집 『라인 강변에 핀 무궁화』를 출간하였다. 독일에 산 지 40년을 맞아 펴낸 이 수필집



에는 4부에 걸쳐 49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유한나 동창은 2008년 《문학과 창작》으로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며, 2012년 《한국수필》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제3원칙

오인경(심리 83)
오인경 지음 / 좋은땅

오인경 동창이 장편소설 『제3원칙』을 선보였다. 작품은 2050년을 배경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그리며,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다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교육공학 박사인 오인경 동창은 크레듀(현 삼성SDS 멀티캠퍼스)와 포스코그룹에서 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다. 교육과 리더십 분야의 전문 서적을 집필한 바 있으며, 소설과 동화라는 틀을 빌려 인간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신경다양성으로 이해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박현옥(특교 85)
박현옥 지음 / 학지사

박현옥 동창이 『신경다양성으로 이해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출간했다. 박현옥 동창은 현재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자폐학회 고문, 함께웃는재단 이사, 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게 새 힘을 주는 성경 기도 필사

안선희(기독 88)
안선희 편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문을 필사하며 묵상하도록 한 책이다. 불안한 오늘을 살아내는 현대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경 말씀 80여 구절과 기도문 40개가 수록되어 있다. 기도문은 여러 권의 기도집을 출간한 이력이 있는 안선희 동창이 직접 집필한 것이다. 안선희 동창은 모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화가 필요한 순간

류지현(불문 90)
류지현 지음 / 서교출판사

류지현 동창이 말과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고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소통을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 지침서 『대화가 필요한 순간』을 출간했다. 류지현 동창은 마음을 여는 대화, 유능하게 보이는 대화, 신뢰를 주는 대화, 가치를 높이는 대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아나운서이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인 류지현 동창은 SBS 아나운서를 비롯해 다수의 국제행사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또한 광운대 겸임교수, aSSIST 객원교수이며, YOU Creative Communciations 대표이다.



대현 씨는 지금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김성은(교육 91)
김성은 글·양양 그림 / 문학동네

김성은 동창이 지난 4월 시 그림책 『대현 씨는 지금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를 출간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떡볶이 한 접시의 추억을 시와 그림으로 빚어낸 시 그림책 『떡볶이, 맛나다』(나는별)를 펴냈다. 김성은 동창은 2000년 첫 그림책을 낸 뒤 그림책 글 작가로 활동해 왔으며, 2021년 동시로 등단하여 2025년 첫 동시집 『못된 말 장례식』(문학동네)을 펴냈다. 이 시집에 수록된 산문시 「지금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에 그림을 입혀 그림책으로 재탄생했다.



湖珠先生とワクワク学ぶ はじめての韓国語 STEP1

배호주(동양 93)
배호주 지음 / COJI

배호주 동창이 일본에서 한국어 입문

서를 출간하였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쉽고 즐겁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배호주 동창은 현재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 및 색채 관련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취향과 불평등의 사회학

최샛별(사회 93)

최샛별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문화자본 연구의 이론적 계보와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동시에 조망하는 이 책은 교육적·사회적·정책적 맥락에서 문화와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통찰을 제공한다.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런 취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묻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계급 재생산과 불평등 구조에 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할 것이다. 최샛별 동창은 모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몸은 어떻게 스타일이 되는가

김수영(장미 01)

김수영 지음 / 곰출판

『몸은 어떻게 스타일이 되는가』를 펴낸 저자 김수영 동창은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을 보면, 우리 몸엔 이미 서양 패션사가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책은 점, 피부, 털, 목, 가슴, 허리, 다리, 손, 발, 냄새 등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몸과 의복이 상호작용하며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수영 동창은 LVMH 그룹 KENZO 파리 본사에서 실무를 경험했으며 이화여대·성신여대·단국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악보가 말하지 않는 것들

김보람(관현 05)

김보람 지음 / 사농공상

김보람 동창이 『악보가 말하지 않는 것들』을 펴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수천 회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악보를 준비해 온 악보위원 김보람 동창이 클래식 무대 뒤편에 숨겨진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악보위원의 역사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부터 오케스트라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악보와 연주의 질서를 잡는 담당자가 오케스트라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클래식 업계에서도 악보위원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김보람 동창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다. 좋은 연주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수많은 손길, 악보를 둘러싼 치열한 사전 작업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화의 설립자이자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출발점
메리 F. 스크랜튼이 남긴 열정과 헌신의 발자취

메리 F. 스크랜튼 자료집

이화역사관 엮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40주년을 맞아 이화역사관에서는 이화의 역대 지도자 및 이화에 헌신한 선교자들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 교육사, 여성사에서 큰 역할과 공적을 남긴 이화의 스승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역사 편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메리 F. 스크랜튼 자료집』은 '이화 역사 총서'의 세 번째 권으로, 이화학당의 설립자이자 초대 당장인 메리 F. 스크랜튼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한 자료집이다.



SINCE 1999 S. Noble

국내 최초 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오랜 시간 쌓아온 품격
깊은 신뢰의 만남

에스노블은 오랜 시간,
품격 있는 만남만을 만들어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끈 27년의 신뢰,
이제 당신의 만남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 Limited Edition ♥

총동창회 New 기념품



미니 인형 키링
이화 학위복 & 미니 학사모 귀여운 곰돌이 키링
사이즈 : 가로 13cm * 세로 15cm

20,000원



다리아송 파우치
일러스트작가 다리아 송 디자인 PVC 투명 파우치
사이즈 : 가로 22cm * 세로 15cm * 폭 9cm

10,000원



졸업 베어 뱃지
가방이나 의류에 착용이 가능한 곰돌이 뱃지
사이즈 : 가로 3cm * 세로 4cm

5,000원



이화 아크릴 스탠드
이화 교정 등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DIY 스탠드
사이즈 : 가로 15cm * 세로 4cm * 폭 7cm

10,000원



졸업 곰돌이 인형
보들보들 감촉이 좋은 학위복 곰돌이 인형
사이즈 : 가로 20cm * 세로 20cm * 폭 12cm

35,000원



패더레더케이스
기존 다크그린 색상에서 카멜, 머스타드 추가
사이즈 : 가로 33cm * 세로 24cm

25,000원



이화 자동차 키링
딥 그린 가죽과 배꽃 참 자동차 키링
사이즈 : 가로 3cm * 세로 16cm * 폭 3cm

20,000원



배꽃 무자기 플레이트
유광 gloss / 도자기 세라믹 / 청화, 백자
사이즈 : 가로 21cm * 세로 21cm * 깊이 1cm

50,000원



이화 카드지갑 키링
딥 그린 가죽과 메탈 참 카드지갑 키링
사이즈 : 가로 10cm * 세로 6cm / 카드 수납 6개

20,000원

* 상세 치수는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장소**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총동창회 사무국 803호

■ **판매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품목당 100개 이상 구입 시 10% 할인(수첩 달력 제외)
- 택배 주문(02-3277-3386, 3387 또는 ewhaalum@ewha.ac.kr) 가능[택배 요금 본인 부담]